

KARA 만5세를 위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동물 치킴이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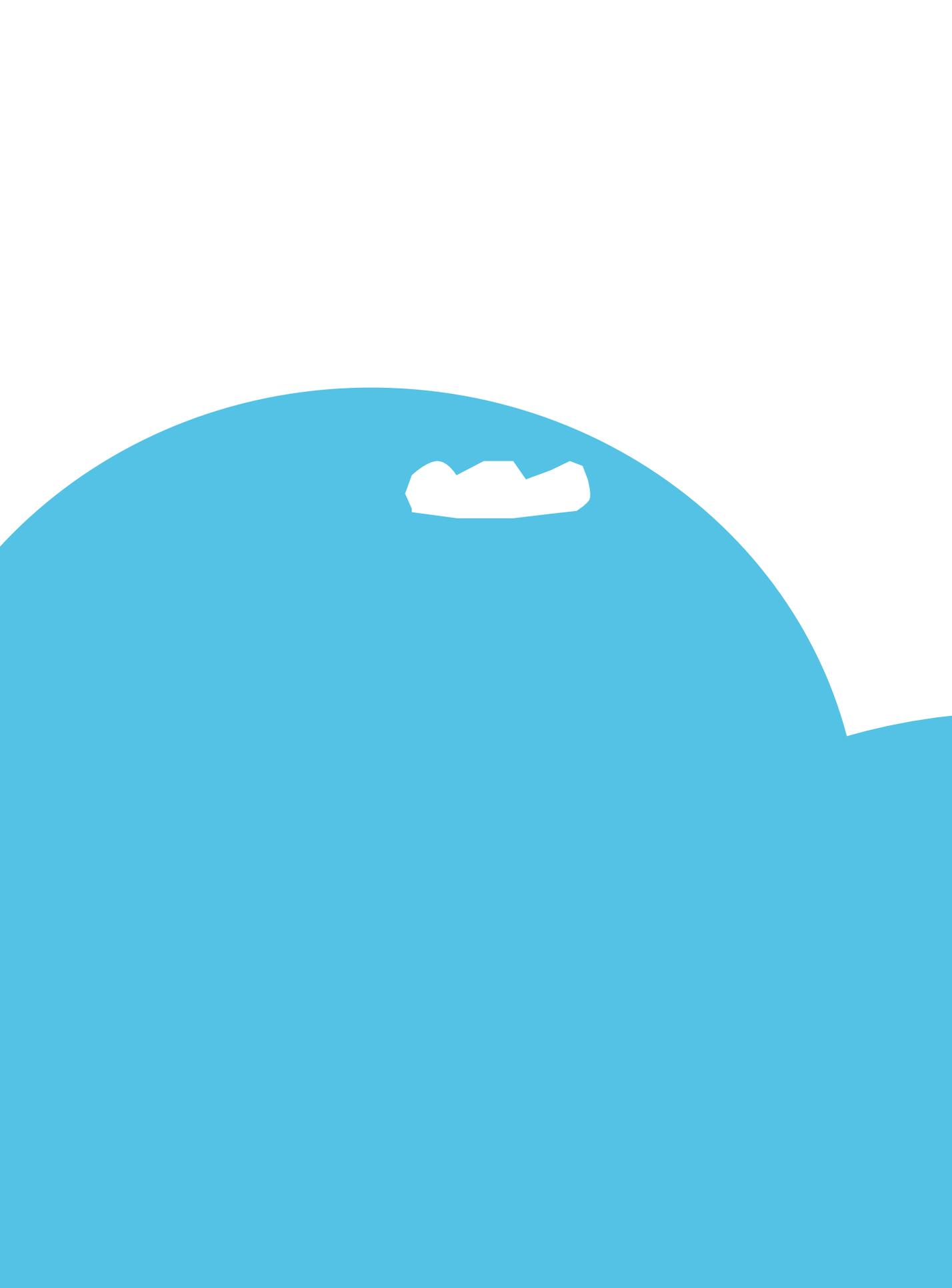
우리는 동물 지킴이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



KARA



우리는 동물 지킴이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

1장.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이해

1-1. 서론 _10

- A.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_10
- B.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원리 _11

1-2. 이론적 배경 _12

- A. 동물과 유아 _12
 - 1. 동물에 대한 제 관점
 - 2. 동물에 대한 유아의 인식
- B. 동물보호교육 _19
 - 1. 동물보호교육의 개념
 - 2. 동물보호교육의 내용
 - 3. 유아를 위한 동물보호교육
- C. 누리과정과 동물보호교육 _28

2장. 만 5세 유아를 위한 동물보호프로그램

2-1. 프로그램 개발 _32

- A.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_32
- B.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_33
- C.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_35

2-2. 프로그램의 실제 _36

- A. 주간교육계획안 _36
- B. 활동 목록 _38
- C. 대·소집단 활동 _39
- D. 자유선택활동 _71

2-3. 프로그램 활용의 방안과 제언 _104

- 참고문헌 _105
- 부록1_교수자료 미리보기 _107
- 부록2_한국의 동물보호법 _126
- 부록3_생명존중이 살아 숨 쉬는 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_129
- 필진소개 _133
- 동물권행동 카라 소개 _134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배려와 공존을 배웁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만5세 아동을 위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이 드디어 책으로 묶여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카라는 창립초기인 아름뜰 시절부터 '교육'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동물과 아름답게 공존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려면 제도개선과 인식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카라는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카라, 동물보호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고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이러한 성과가 드러나고 아동-청소년 동물보호교육의 국가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커짐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물보호교육 강화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그 시절에 나와 동물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동화책과 애니메이션 영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동물과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같은 언어와 감성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거위와 여우와 사자가 서로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게 어린이들은 더 어렵지 않았던가요? 어린 새끼 돼지가 엄마를 잃고 울어대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게 아이들입니다. 동물과의 순수한 교감능력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이라는, 나와 다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교감하는지가 인간의 감성과 도덕적 영역 그리고 사고력까지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인간에 대한 학대와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에 이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특히 타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배려와 공존의 핵심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사고력이 성장하며, 그 무렵 형성된 경험과 감성이 평생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연령인, 5세 유아에 대한 동물보호교육은 그 효과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몇 번이라도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물보호교육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유아용 교재를 만들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자료도 적고 연구자도 적은 상황에서 많은 애를 써주신 강정원, 김혜경 두 교수님과 감수해주신 임미령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님, 그리고 지난한 실무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까지 성실하게 이끌어준 박아름 교육팀장과 간현임 간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사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서 활발한 피드백을 주신다면 다음에는 더욱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임순례

동물보호교육, 인권교육이자 생명존중교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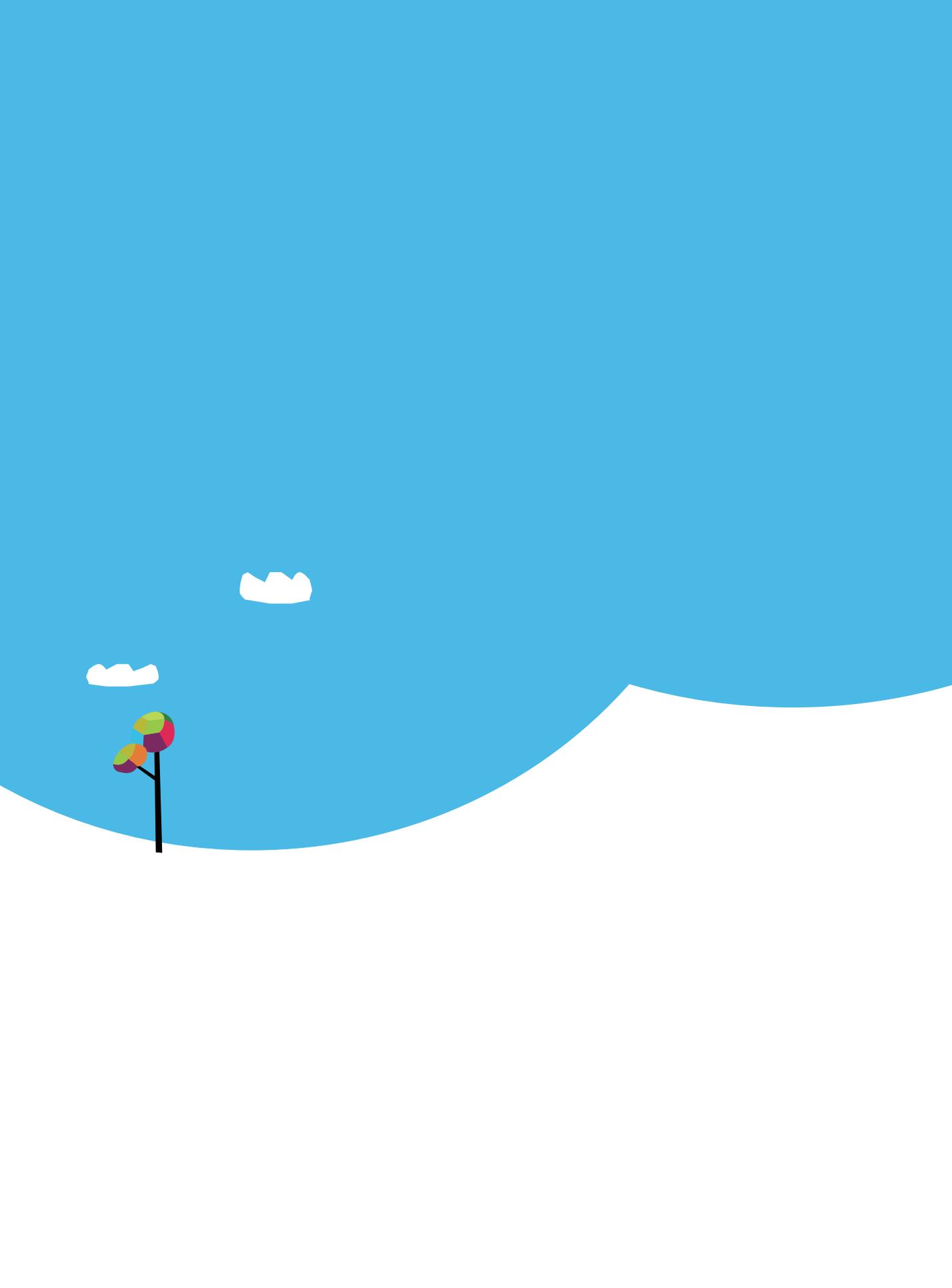
동물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동반자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와 문명의 개발은 인간의 안락한 의식주와 쾌락을 위해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는 우리의 일상은 그 뒤에 많은 생명체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홀로 살아가는 법은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시각에도 고통 받고 있는 동물 친구들을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동물들의 복지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동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동물들을 친구로 사랑하고 삶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생활 윤리를 실천하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영유아기 어린이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동물 친구들입니다. 어른들의 이성적 사고와는 달리 영유아기는 애니미즘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동물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 크고 동물 친구들과 말하고 놀고 생활하며 그들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동물 친구들에게 의도와는 다르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보편화된 인간 중심적 삶의 방식으로 인해 아무런 의식 없이 육식을 즐기기도 하지요. 그렇다 해도 영유아기의 어린이야 말로 동물 친구들과 더불어 지구의 미래를 살아갈 것이므로, 이 시기 어린이들이 동물 친구들의 기쁨과 즐거움,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기꺼이 친구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을 실천하며 나아가 사회적 행동에 앞장설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릴 적 길러진 삶의 태도와 습관이야 말로 이후의 지속적인 삶 속에서 행동

을 결정하게 될 가장 큰 요인이므로 동물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자라게 될 우리 어린 친구들이야말로 동물 보호를 위해 가장 값진 일을 해낼 큰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 교육은 인권 교육이자 생명존중교육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물 보호 교육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보다는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포괄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카라'가 개발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동물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권적 관점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이런 소중한 일의 실천을 위해 늘 앞장 서주시는 '카라'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에 '카라'가 개발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인 유아교육 학자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담을 수도 있고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천을 통해 더욱 의미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프로그램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동물들과 멋진 동반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도권 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임미령



1장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이해



1-1. 서론

- A.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B.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원리

1-2. 이론적 배경

- A. 동물과 유아
 - 1. 동물에 대한 제 관점
 - 2. 동물에 대한 유아의 인식
- B. 동물보호교육
 - 1. 동물보호교육의 개념
 - 2. 동물보호교육의 내용
 - 3. 유아를 위한 동물보호교육
- C. 누리과정과 동물보호교육



A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유아기는 신체와 인지능력을 키우면서 세상을 탐색하고 사회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시기이다. 유아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동물을 좋아하고 궁금해 하며, 동물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아파하기도 한다. 유아는 동물을 관심과 '조건 없는 우정'으로 대하며, 생명으로서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사람은 동물과 가까이하며 살아왔지만, 산업화된 지금의 사회에는 안타깝게도 공장식 축산,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반려동물 공장 등의 동물학대가 만연하다. 동물의 고통과 이와 연관된 자연 파괴,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공감과 성찰에서 동물과 인간 자신을 돕기 위한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동물이라는 '타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에 대한 성찰과 연결된다. 동물도, 그리고 내가 '타자'화하던 어떤 이도, 내가 느끼는 것처럼 기쁨과 두려움, 행복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모두가 가진다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학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동물을 돌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을 배우는 동물보호교육은 생명감수성과 공존의식을 키우는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이다. 자아 인식과 타자에 대한 조망능력이 성장하고, 가소성(plasticity)이 높아 인성교육의 최적기로 여겨지는 유아기에 적절한 동물보호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사회의 영역이 그만큼 넓고 풍요로워질 것이며, 우리 삶에 생명에 대한 존중이 더욱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 2012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동물보호 교육'(33.0%)이었다.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만큼 커졌지만, 아직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유아기부터 동물보호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요구된다.

B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원리

- 만 5세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으로 구성한다.
조망수용능력의 발달, 마음이론의 발달 등이 만 4세를 전후하여 크게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인관계 기술의 발달적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만 5세를 위한 활동으로 고안한다.
- 동물전문가와 유아교육 전문가의 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 동물보호 활동가에게는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활동 수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유아교사들에게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천의 소양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는 누리과정의 생활주제 '동식물과 자연'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내용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궁금함에서 시작하여 동물과 맺는 관계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했다.

주제	궁금한 동식물	동물과 우리의 생활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	식물과 우리의 생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
소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동식물 탐구하기 • 상상 속의 동식물 탐구하기 • 사라진 동식물에 관심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과 함께 하는 즐거움 느끼기 • 동물이 주는 이로움 알아보기 • 동물과 함께 지내는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으로 함께 사는 동물 배려하기 • 바깥에서 만난 동물 배려하기 •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 배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과 함께 하는 즐거움 느끼기 • 식물이 주는 이로움 알아보기 • 식물과 함께 지내는 방법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의 서식지에 관심가지기 • 사라져 가는 동식물에 관심가지기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주제 '궁금한 동식물'과 '동물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 다루어진 내용이 '동물을 보호를 실천해요'라는 주제를 통해 심화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유아는 주제 '궁금한 동식물'과 '동물과 우리의 생활'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인간과 동물의 공생적 관계에 대해 주제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의 활동을 통해 동물을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대상으로 배려하며,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유아에게 적합한 동물보호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자원 및 교수 매체를 지원한다.
활동의 발달적 적합성을 위해 교수 학습 자원과 교수 매체를 개발 보급한다. 더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시민단체의 유아 교육활동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학습 자료로 이용하도록 부록에 실는다.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활동 전개의 접근성을 높였다. 선 출간된 그림책과 제작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활동을 고안하였다.

A 동물과 유아

1. 동물에 대한 제 관점

● ‘동물’이라는 단어는 주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통용된다. ‘동물’의 사전적 의미는 길짐승, 날짐승, 사람, 벌레 등 식물이 아닌 생물을 뜻하지만¹, 우리는 곧잘 그 속에서 우리 자신, 즉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인간의 동물성, 동물의 존엄성을 부정하곤 한다. 그래서 인간 외의 동물을 지칭할 때 ‘비인간동물(non-human anim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 역시 동물의 한 종(種), ‘Homo Sapiens’이며 다른 종의 동물들과 함께 인간도 ‘동물’에 속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화법도 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동물’을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통속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 그러는 사이 현대인들은 다른 종의 동물과의 접점을 많이 잃었고, 이와 함께 공장식 축산, 무분별한 동물실험,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반려동물 공장 등에서 대규모 동물 학대가 구조화, 심화되었다. 동물의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여러 통계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매년 세계적으로 700억 마리², 한국에서만 9억여 마리³의 동물이 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의 육류소비는 과거에 비해 10배가량 늘었는데⁴, 이는 곧 동물들이 축사에서 사람의 직접 돌봄을 받으며 살던 기존의 ‘농장’ 시스템을 동물들이 몸을 제대로 펼 수조차 없는 곳에서 평생 지내게 하는 ‘공장’식 축산, 비인도적 동물학대 체제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 문제는 이것이 인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세계식량 농업기구(FAO)는 2005년 축산문제가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⁵ 지구 육상 면적의 30%, 경작 가능 농지의 70%가 축산에 사용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은 전체 온실가스의 18%에 달해 대기오염원으로는 자동차를 능가한다. 또한 전 지구의 인구를 먹이고도 남은 세계 농경총생산의 40% 이상이 축산에 동원되

1) 동물보호법 제2조 :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Compassion in World Farming(<http://www.ciwf.org.uk>), Strategic Plan 2013-2017

3)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http://www.kmta.or.kr>), 통계자료 2016년 도축 현황.

4)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소비현황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1970년 5.2kg에서 현재 51.3kg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00년의 31.9kg과 비교해도 육류소비가 급속도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2005), Livestock's Long Shadow

는 현실은, 일부 국가는 영양과잉에, 또 다른 국가는 기아에 시달리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생제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80%가 축산업으로 흘러들어가⁶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⁷, 인명까지 앓아 가는 온갖 변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탄생하는 원흉지로 공장식 축산이 꼽힌다는 사실은 최근 우리 사회가 동물을 잘못 대하고 있으며, 그 해악이 인간 자신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산업의 발달, 사회의 성숙, 철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는 기아와 같은 생존의 문제, 소외와 폭력의 문제,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중시되고 권리가 확장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과 연관된 잔인한 관습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호소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불독’의 유래와 연관된 ‘Bull-fight(소와 개를 싸우도록 하고 구경했던 것)’, 유럽의 다양한 (생존과 무관한) 사냥 이벤트,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전 거리에서 빈발했던 말에 대한 학대 등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19세기 초 유럽의 근대적 동물보호운동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1822년 세계최초로 동물보호법제화를 성공시킨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 1754-1834)이나 프랑스에서 빅토르 위고와 함께 동물권을 주장한 빅토르 쉐셰르(Victor Sch lcher, 1804-1893)의 경우 모두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싸운 정치가이기도 했다⁸는 점은 흥미롭다. 이들이 ‘인도주의(humanism)’를 발휘한 ‘박애의 대상’에 인간 뿐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는 다른 동물들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현대에도 큰 영감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 동물에 대한 이와 같은 고려를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한 기념비적인 책이자, 현대적인 동물보호운동의 기폭제로 지목되는 것이 대표적인 동물윤리 이론가 피터 싱어(P. Singer)의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 1975)’이다.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의 시각에서 동물권을 다루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capacity for suffering)’이 있다면 그 존재의 이익, 즉 고통을 피하거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인간이 다른 종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종차별주의(Speciesism)’로 규정하였다. 한편 보다 급진적인 동물권의 입장을 정초한 톰 리건(T. Regan)은 1983년에 편찬된 ‘동물권(The Case for Animal Rights)’이라는 저서에서 동물을 삶의 주체(subjects of a life)로 보았고, 이들이 동등한 각자의 본래적 가치(inherent value)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동물 이용에 반대하였다.⁹

6) Louise M. Slaughter(2011),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용, Confirmed: 80 Percent of all antibacterial drugs used on animals, endangering human health, (<https://louise.house.gov/>)

7) John Clifford(2010), Testimony of Dr. John Clifford, Deputy Administrator for Veterinary Services,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8) 리처드 마틴 : http://www.britsattheirbest.com/living/l_rspca.htm 빅토르 쉐셰르 : 엘리자베스 드 폰트네(2008), ‘동물도 생각과 감정이 있을까?’, 웅진주니어

9) 조중현(2013) 참고

● 동물복지와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과학적 접근 역시 동물에 대한 처우에 영향을 미쳤다. 베이트슨과 바너는 영국 의료윤리연구소의 고통 판단 조건 연구에서 중추신경계 통, 진통제에 의해 완화되는 반응, 유해 자극에 대한 인간과 비슷한 반응과 그의 지속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판단을 통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르면 모든 척추동물과 두족류 무척추동물은 인간과 유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¹⁰ 영국,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적 학문 분야로 자리잡은 동물행동학(Animal Behaviour), 동물복지학(Animal Welfare) 등은 동물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 이러한 흐름은 각국의 입법, 행정과 국제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1978년 세계동물권리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을 위시로 2003년의 세계동물복지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Animal Welfare) 등의 세계적인 노력으로 이어졌고,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추구하며 동물의 고통과 그들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및 복지기준을 개발할 것을 각국에 요청하는 데에 이르렀다. 특히 유럽의 경우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과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정하였다.¹¹

세계동물권리선언 (1978년)	세계동물복지선언 (2003년)
전문(Preamble)	전문(Preamble)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은 하나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여, 진화 과정에서 다양화 되었다. -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연적 권리를 가지며, 특히 신경계가 있는 동물은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자연적 권리에 대한 간과와 무지로 인해, 인간은 자연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 - 생명이 공존하려면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의 살아갈 권리를 인지해야 한다. - 인간이 다른 동물을 존중하는 것과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이며, 동물복지는 가입국들이 고려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이다. 2. 인간은 지구를 다른 종, 다른 형태의 생명과 공유하며, 모든 형태의 생명들은 상호의존적 생태계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3. 동물복지는 현존하는 최상의 과학적,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추구해야 한다. 4. '동물의 5대 자유(배고픔, 목마름, 영양실조로부터의 자유; 공포,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환경적 불편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출할 자유)'가 동물복지의 중요한 일반적 원칙임을 상기한다. 5. 동물복지의 향상은 인간과 환경에 큰 이익을 주며, 정책을 논의할 때 동물복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 안전한 먹거리, 빈곤과 기아의 감소, 재난 위기의 감소와 완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의 발전을 비롯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정부와 UN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믿는다.

10) Bateson & Vamer(2006) ; 최훈(2009) ; 서경욱(2017) 참고

11) 박찬운(2010); 조중헌(2013)

- 위와 같이 세계동물권리선언과 세계동물복지선언의 전문에서 비교해볼 수 있듯이, 동물의 천부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물권’론과 동물의 지각력을 근거로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복지’론에는 동물을 인식하는 방식과 해결방향 면에서 차이가 있다. 동물권 진영은 모든 동물이용에 반대하고, 동물복지 진영은 동물이용 자체를 원천 반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적 고려와 실질적 복지 증진을 주장하는 식이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동물권을 지향하지만 현실적 수단으로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신복지주의(New Welfairism)가 대두하였다. 많은 세계 유수의 동물운동 단체들이 그러하듯, 2000년대 들어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동물운동 역시 궁극적으로 동물착취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동물착취를 규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 특히 2003년 ‘아름품’으로 출발한 동물권행동 KARA(이하 ‘KARA’)는 사회전반의 낙후된 생명존중의식의 제고와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하면서, 캠페인과 동물보호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¹³ 1824년 시작된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단체, 영국의 왕립동물학대방지연합(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이하 ‘RSPCA’)이 설립 초기부터 강조한 주요 전략 네 가지 중 하나 역시 교육이었다. 현재 영미권과 유럽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도주의 교육(humane education), 동물복지교육(animal welfare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보호교육이 국내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동물이라는 ‘타자’이자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성찰이 곧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공감과 배려, 공존을 배우는 인성교육으로서 동물보호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 동물보호교육은 동물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는 점, 대규모 동물학대를 원료로 굴러가는 산업이 자연환경과 인간 자신까지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물에 대한 폭력과 착취는 결국 인간사회의 생명감수성과 공존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UNESCO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가치 교육(Values education)에서 동물권(animal rights)을 다루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¹⁴

12) 조중현(2013) 참고

13)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https://www.ekara.org/>)

14) UNESCO, Teaching and Learning for a Sustainable Future(<http://www.unesco.org/education/tls/>)

2. 동물에 대한 유아의 인식

1) 유아의 생명 및 동물 개념 발달

- 생후 1개월부터 인간 얼굴의 도식적 요소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영아는 얼굴의 모양, 다리의 유무, 목표 지향적 움직임을 통해 동물과 동물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 유아기에 이르면 성장, 영양분과 물의 섭취, 나이 들과 죽음, 재생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의 생명현상을 인지하며, 동물의 실재성, 활동성, 반응성 등에 의거하여 동물과 인공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생물에 대한 유아의 이해가 급속히 발달하는데, 4세에서 발달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5세 유아는 생명현상 인지 기준이 불명확한 3, 4세 유아와는 달리 동물속성에 근거하여 생명을 인지하며, 동물과 무생물의 구분에서 독자적인 초보이론을 구성하는 단계에 이른다.¹⁵

- 이 시기의 유아들은 가족 내 반려동물이나 집 안팎의 작은 생물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기르는 동식물¹⁶을 만나기도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경험은 유아의 유대와 애착형성, 자존감 향상 등을 도와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¹⁷ 그리고 지렁이, 초파리 등의 작은 생명체를 유아들이 함께 관찰하며 돌보는 체험은 유아의 생물 친화적 성향의 증진, 도덕적 판단발달 수준의 향상,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 등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유아들이 작은 생명체를 만나게 될 때 매우 민감한 ‘원초적 공감’(primitive empathy)을 한다고 한 Howe의 주장과 유아들이 사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고 도덕적 법칙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Piaget의 물활론을 근거로, 유아기 내 적절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¹⁸

- 유아들은 개인적인 좋아함, 동물의 외형적 이미지, 동물의 신체적 특성, 동물의 유용성, 동물의 행동특성, 동물에 대한 지식 등에 따라 자기가 접하는 동물들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이때 유아들이 동물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형성하지 않고, 동물을 공존과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동물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 가도록 지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례로 지렁이의 역할에 대해 담임교사와 동화를 통해 학습한 유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지렁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¹⁹

15) 노보람(2014) 참고

16) 허정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의 75%, 이현주,조미환(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전 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83.6%가 동물 기르기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17) 김태경(2013) 참고

18) 홍옥선(2015) 참고

19) 김선애(2006) 참고

- 본 프로그램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3-5세 유아들은 동물의 특징, 생활주기,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에 관한 개념 형성에 있어 연령 대별 차이를 보이며, 특히 동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 발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공생’과 관련된 질문에 3세 유아들은 응답하기 어려워하고, 4세 유아들의 경우 ‘아빠, 엄마, 나의 수준에서 응답하였으며, 5세의 경우 사람과 다른 포유류의 공생을 이해하는 식이다.²⁰ 또한 만3,4,5세의 동물에 대한 질문을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만 5세는 동물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여 보다 많고 다양하며 구체화된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며, 3,4세에 비해 ‘동물 기르기’와 같은 상호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²¹ 사람이 동물과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유아교육에서 생물분야에 대한 최근의 교육 방향은 유아의 생물에 대한 지식보다 생물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에 대한 교육 역시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²² 자연친화적 태도가 환경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이 자연친화적 행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는 것처럼,²³ 동물친화적 태도와 책임감을 조기에 형성한다면, 유아가 동물과 자연환경을 돌보고 상생과 공존을 지향하는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프로그램은 동물개념과 함께 ‘공생’에 대한 개념이 성숙하고 비교적 풍부한 관련 경험을 가진 5세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2) 유아의 공감능력 발달

- 사람은 공감능력을 타고나며, 우리 두뇌 속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개발된다 (Krznaric, 2014). Melzoff(2003)는 생후 몇 시간에서 며칠 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특정 인상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을 연구한 결과, 즉각적인 모방이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뇌 속에 신경생리학적 장치가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인간에게 감정적 측면 뿐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으로도 거울반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18개월이 된 영아는 타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주로 ‘놀이’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훗날 타인의 행동과 입장에 대한 직감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울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확장된다.²⁴

- 유아의 자아개념은 생후 24개월에 이르러 부모나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20) 이보영(2012) 참고

21) 문가영(2010) 참고

22) 이보영(2012) 참고

23) 허윤정(2001); 김선아(2006) 참고

24) 정하나(2015) 참고

통해서 자신의 몸과 타인을 구별하여 자신의 몸을 통제하게 되면서 기초적으로 형성되며, 이후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성별, 연령, 신체적 특징, 일상 행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자신을 분류하는 범주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사회적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된다. 3~4세 유아는 소유물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나타내면서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5세에 이르면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5세 유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²⁵

- 유아들은 또한 ‘감정이입’ 능력과 ‘이타적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타인의 느낌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타인의 느낌에 대한 대리적인 정의적 반응을 일컫는 감정이입 능력에 있어 영유아기는 비교적 미분화되고, 조망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시기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은 감정이입 능력을 발달시키며, 특히 동물과 가까이 하면서 정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활동에 참여한 유아는 성별에 상관없이 그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²⁶ 또한 친사회적 행동의 근거가 되는 이타성은 역할수용능력이 가능한 3~4세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4세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세 전후까지 가장 높이 발전한다.²⁷ 학자들은 인지적 사고 없이도 이타적 공감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적기로 자기중심의 시기를 벗어나는 유아기를 꼽고 있으며,²⁸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공감적 경험을 촉진시켜주는 환경적 특성에 의해 공감 능력의 발달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²⁹

- 이처럼 최초로 집단생활과 또래관계를 경험하며 ‘교사’,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자를 접하고, 감성지능과 함께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풍부한 기회를 가지는 유아기는 사회적, 정서적, 공감적 능력을 기르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³⁰ 미국 하버드 심리학자 역시 아이가 5~6세에 이르면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 ‘존중’, ‘경쟁’, ‘타협’ 등의 능력을 발달시켜나가며, 심지어 이 시기에 키운 공감능력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Fjortoft(2001)와 Gurevitz(2000) 역시 유아기에 돌봄, 감정이입, 생명존중 같은 감각들이 내면화 되면 추후 친환경적 실천을 수행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 시기의 교육 및 체험적 경험은 정서지능과 감수성의 발달, 그리고 ‘공감과 돌봄의 대상’, 나아가 ‘윤리적 고려의 대상’의 폭을 결정해 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

- 유아기의 동물보호교육은, 유아가 인간사회의 또 다른 주요 ‘타자’인 다른 동물에 대한 동료의식과 공감능력을 가장 적절한 시기부터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

25) 김도향(2016) 참고

26) 이화수(2001) 참고

27) Bar-Taletal(1982); 홍옥선(2015) 참고

28) 김상윤(2006); 홍옥선(2015) 참고

29) Eisenberg(1986); 홍옥선(2015) 참고

30) 정하너(2015) 참고

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돌봄, 그리고 지구환경 및 인류 자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찰과 올바른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들로 하여금 다른 동물이 나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포착하며,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안내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B 동물보호교육

1. 동물보호교육의 개념

- 동물보호교육이란 동물이 고유한 삶의 욕구와 지각력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이 동물과 원활한 공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 가치, 태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동물보호교육은 동물의 생로병사 과정에서 동물의 욕구가 사람에게 의해 받는 방해물을 최소화하고 그 목적과 내용 및 수행방식에서 동물의 복지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을 지향한다.
- 국내에서는 동물보호교육(KARA/황선미, 2009), 동물복지교육(엄인영, 2016), 동물존중교육(서경옥, 2017), 동물친화교육(조지연, 2015) 등의 명칭으로 유관개념을 명명한다.

• 동물이해프로그램 animal understanding program

: 과학교과와 체험학습을 연계하여 동물의 생김새와 서식처 등의 생태적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

연구자 / 연구요약 _ 백성희(2008) / 도시공원 안에 동물원이 있는 대구의 달성공원을 사례로 환경교육 측면에서 지역 도시공원을 교육의 장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동물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

• 동물보호교육 animal protection education

: 인간 중심적인 개발의 논리와 환경파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구적 가치로만 인식되는 동물의 생애를 소재로 한 각종 영상매체 (다큐멘터리, 영화), 환경 도서, 환경 시, 공익광고, 국립수목원·과학검역원의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

연구자 / 연구요약 _ 황선미(2011)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인식과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동물윤리교육 animal ethics education**

: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동물윤리의 주제를 도덕 윤리 교육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

연구자 / 연구요약 _ 송하영(2015) / 동물윤리가 전개된 철학적 흐름과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동물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도덕과 동물윤리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

• **동물친화교육 animalfriendly education**

: 동물에 대한 생태와 습성을 배우고 먹이주기와 같은 접촉을 통해 교감하면서 상호 좋은 관계로 발전하여 생명체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활동

연구자 / 연구요약 _ 조지연(2015) / 서울대공원 동물교육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동물교육의 필요성, 선호도, 만족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

• **동물복지교육 animal welfare education**

: 동물원 교육에서 동물원 직원과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보전, 환경, 생태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연구자 / 연구요약 _ 엄인영(2016) / 국내외의 동물원 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 및 동물원 사육사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면담조사를 통해 동물원 교육 방향 및 동물복지 교육 방안 제시

• **동물존중교육 animal respect education**

: 관계성에 기반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시작으로 동물의 생명 및 감정을 존중하고 학습자들에게 동물의 삶이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전반에 관계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연구자 / 연구요약 _ 서경옥(2017) / ‘온생명론’을 바탕으로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동물존중교육의 새로운 교육 방안 탐색

- 해외에서는 ‘animal welfare education’(RSPCA), ‘humane education’(Institute for Humane Education) 등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와 활동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동물복지교육 animal welfare education**

: 동물복지교육은 동물의 삶에 대한 인간의 영향과 관련된 지식, 이해, 기술, 태도, 가치를 교육한다. 이는 동물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책임감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동물복지교육은 인도주의 교육의 한 요소이다.

사용자 _ RSPCA

• **인도주의교육 humane education**

: 인도주의 교육은 생명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되곤 한다. 인도주의 교육은 비인간 동물에 대한 처우를 다루는 전통적인 주안점뿐만 아니라, 환경, 다른 이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인간과 지구와 관련된 이슈들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점점 더 다루고 있다.

사용자 _ ASPCA, HSUS

● 위의 국내 연구들은 과학, 환경, 윤리 등의 교과와 관련되어 동물의 생태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의 태도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교육 과정에서 동물 개체에 대한 동물복지 위해 요소가 비교적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다. 아래와 같이 한시적인 수업에서 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동물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인간 흥미 위주의 일방적인 동물 이용으로 보이고, 동물의 생로병사 과정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돌봄을 책임성 있게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보호교육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 반려동물교육 education of companion animals

: 방과후 생명과학수업 시간에 약 월1회 강아지, 병아리, 고슴도치, 햄스터, 소라게 등을 보여주거나 분양하여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키워보게 하는 체험활동

연구자 / 연구요약 _ 권혜준(2014) / 방과후 생명과학수업을 대상으로 U-City 정보화사회에서 반려동물교육이 아동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영국 RSPCA는 동물복지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물, 특히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외에도 특정 종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들(주/야행성, 단독/사회생활 등)이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한 종이 다른 종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종종 방해하고, 방해받는다. 인간 역시 다른 동물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고, 그 결과 동물들은 그들에게 있어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동물의 이용, 즉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의 양산에 있어 인간은 그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들을 최대한 잘 돌볼 윤리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동물복지교육이다.³¹

● 동물에 대한 견해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동물의 지각력(인간처럼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능력)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RSPCA는 말한다. 동물복지교육은 불필요한 고통과 잔인함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 교육을 통해 인간은 동물의 욕구, 동물과의 상호작용 방법, 생명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또 인간의 행동이 동물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인간의 윤리적 의무를 받아들일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교육은 삶의 기술, 즉 돌보고, 기르고, 소통하는 등의 행동을 익히도록 해 주며, 공정함, 친절, 공감,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³²

●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아이들

31) Paul Littlefiar(RSPCA), David Coggan(Humanebeing), 2013년 KARA 동물보호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교육자료

32) 참조 위와 같음

은 동물에 대한 흥미를 많이 보이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나 길에서 마주치는 새와 같이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접근이 용이한 편이며,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과도한 공포나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발달시키도록 해 주고, 아동이 불필요한 폭력성을 발현시키거나 동물 관련 사고를 겪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³³

2. 동물보호교육의 내용

- 동물보호교육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에서부터 동물의 욕구 및 그에 대한 공감과 배려, 그리고 나아가 인간의 책임과 바람직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교육의 소재로 삼을 것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인간이 가족처럼 지내는 반려동물, 음식으로 이용하는 농장동물,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서 살아가는 전시동물, 연구 과정에서 희생되는 실험동물, 털을 의복에 이용하기 위해 길러지는 모피동물, 점차 줄어가는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 등 여러 양태의 관계를 다룰 수 있다.
- 동물보호교육은 또한 그 안에서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기술(Skill), 가치(Attituded), 태도(Value) 등 다양한 영역을 풍부하게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곤충’을 소재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한다면 여러 종의 동물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욕구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이와 함께 곤충과 그 서식지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곤충을 관찰하면서 동물에게 가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자연을 즐기고 위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자연을 돌보는 태도를 함양하는 동시에,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된다.³⁴
- 동물보호교육의 영역을 인지적 측면의 ‘지식’, 정의적 측면의 ‘신념’, 행동과 관련된 ‘기술’의 측면으로 구조화하고,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는 ‘이해’ 역시 대상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차원으로 보아 이를 ‘지식’에 포함하고, 대상(동물)과 ‘나’라는 인식주체(인간)의 관계성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계’로 다루었다. 또한 ‘기술’을 개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돌봄’과 사회적 변화를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천’으로 분리하였다.

33) 참조 위와 같음

34) 참조 위와 같음

구분	영역	내용의 예시
지식	동물에 대한 이해	동물복지의 개념, 동물의 기본적 필요 사항, 동물의 지각력(래고감수능력), 종에 따른 고유의 욕구와 능력, 동물의 생태와 행동 특성, 동물에 대한 탐구와 이해
	사람-동물 관계에 대한 이해	생태의 유기적 연결성, 동물의 극심한 고통과 환경파괴 등 과도한 착취의 폐해, 사람과 동물의 관계와 역사 속의 변화 과정, 동물이용 합리화 기제 등 인간중심적 시각
신념	가치	생명존중, 상생과 공존,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불필요한 희생의 최소화와 정의의 확대
	태도	생명으로서의 동질감, 호감과 혐오감,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 타자에 대한 존중, 잔인한 관습과 행태에 대한 반대,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측은지심, 정의감(공리주의적 이익평등 고려 등)
기술	돌봄	돌봄에 필요한 노동과 자원에 대한 인지, 동물복지에 근거한 돌봄을 제공하는 기술, 반려동물과의 소통 기술, 야생동물을 방해하지 않는 관찰 기술, 안전한 교류 기술
	실천	채식, 윤리적소비 등 실질적 실천을 위한 일상 기획, 습관의 조정

- 동물보호교육은 인간이 동물과 다양한 양태의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인간이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표적인 원칙으로 여겨지는 것이 ‘동물복지’라고 할 수 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에서는 동물복지 개념을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 즉 만족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배제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입장에서 보는 복지란 최소한의 고통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³⁵
- 동물복지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동물의 욕구와 지각력이다. 모든 동물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종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야행성 동물과 주행성 동물의 활동시간과 수면시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로 주행성으로 활동하는 인간이 야행성 동물을 돌보게 된다면

35) 김옥진(2013); 조지연(2015) 참고

그들의 욕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동물을 소재로 하여 교육을 진행하든, 그 동물의 생태를 공부하여 알고, 그들의 욕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이 자칫 잘못된 영향력을 미쳐 동물의 복지를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동물복지의 지표로 가장 잘 알려진 ‘동물의 5대 자유’는 1965년 영국 정부가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위해 제창하였으며, ①갈증과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⑤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의 요소로 받아들여져,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인간의 관리 의도 대상이 되는 동물들을 대할 때에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응당 고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다.

- 동물의 지각력이란 동물이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쾌고감수능력)을 말한다. 철학자 피터싱어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거나 그것을 방치하는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보았다. 인간처럼 동물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그들 역시 인간처럼 다양한 것을 느끼며 주어진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한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배우는 것처럼, 그러한 배려와 돌봄의 행동을 행할 대상을 인간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동물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 적절한 주제와 소재의 선정을 통한 효과적인 동물보호교육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RSPCA는 동물복지에 대해 교육할 때 교육 대상의 삶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룰 것, 동물을 긍정적으로 다룰 것, 잔인한 묘사는 피할 것,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각각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 대상의 발달단계와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교육대상의 삶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질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욱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 교육의 경우 ‘급속한 멸종 위기’나 ‘농장동물의 잔인한 도살’과 같은 내용보다는 집 근처에서 마주칠 수 있는 비둘기나 지렁이의 생태와 그들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전자는 어린 아이가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 미치는 영향력을 너무 벗어나는 내용일 수 있고, 정서적으로 불필요한 좌절감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동물에 대한 관심을 단절하는 것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어린 아이의 삶과 보다 밀접한 소재와 행동에 대해 다룸으로써 실생활에서 그들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 둘째, 동물을 너무 부정적으로 대상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동물보호교육의 소재를 선정하다 보면 동물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 다만 이때 동물을 인간에게 희생되는 ‘약한 존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로만 다루는 것은 자칫 인간중심적인 시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동물은 진화의 역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자신의 서식지에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존재이고, 그를 위해 필요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동물이 처한 어려움을 거기에 영향을 미친 인간의 행동과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간의 태도와 사회적 변화에 집중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과도하게 잔인한 묘사는 가급적 피한다. 현대사회에서 개별적, 구조적 학대를 겪는 동물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은 사실이며, 동물보호교육 과정에서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다루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정서적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의 사용 등을 통한 묘사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교육대상의 경우 자신의 의향에 반하는 예상치 못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쪽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노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의 연령대, 성숙도, 감수성 등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정서적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피치 못하게 잔인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한 추가 활동, 예를 들어 학대 받았던 동물이 현재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의 내용을 연계하여 다루고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넷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활용한다. 동물보호교육이 동물에 대한 호감과 공감, 연민을 자극하는 것에 그친다면, 감정적인 호소에 대한 반응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동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동물에 대한 보호가 온정적 태도에 대한 단편적 요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과학, 국제협약 등에 근거한 범세계적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잔인한 관습에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한 변화와 실천의 일부임을 드러냄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 동물보호교육의 내용은 교육대상의 연령대별로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유소년기에는 동물도 아픔을 느끼고, 괴롭히면 싫어한다는 것을 배우고,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관찰, 역할놀이 등을 통해 표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대에 이르면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과 생태의 유기적 연결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등교육에 이르면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소비 같은 사회적 실천 속에서 동물 문제를 살펴보면, 점차 봉사활동이나 캠페인 같은 시민행

동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향후 사회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인이 되었을 때 동물복지를 지지하는 시민으로서 생명존중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도울 수 있다. 연령대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주제와 소재의 예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대	내용의 예시	관련 동물 문제
유아기 (유치원, 초등저학년) 3세-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생태 • 동물의 지각력 • 동물의 육구 • 생명에 대한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괴롭힘(학대) • 반려동물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것
아동기 (초등 고학년) 8세-1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생태와 능력 • 생태의 유기적 연결성 • 인간의 영향에 대한 책임감 • 동물복지의 개념 • 반려동물 돌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관련 문제(유기동물 등) • 야생동물의 포획과 감금 및 상업적 이용 •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와 환경문제 • 동물 학대 (방임, 무지, 배려 결여에 의한 학대)
청소년기 (중학교) 12세-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을 위한 법과 제도 • 동물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 • 동물의 지위에 대한 윤리적 고찰 • 동물을 위한 봉사활동 • 동물복지 관련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동물원법,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 농장동물과 환경문제 • 실험동물 • 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
청년기 (고등학교 및 성인) 15세-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을 위한 시민행동 • 동물을 위한 실천계획 • 동물복지 관련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 동물학대 (농장동물, 실험동물, 모피동물 등) • 동물을 위한 시민 행동

3. 유아를 위한 동물보호교육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나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유아기에는, 동물도 사람처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물을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아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동물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고, 다른 생명과 생태계가 가진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 유아기 동물보호교육은 동물의 욕구와 지각력이라는 ‘동물복지’의 기본적 개념과, 동물을 존중하고 돌봐주는 ‘공감과 돌봄’의 행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유아기에 전달되면 좋을 동물복지에 대한 예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 (개념적 차원)	공감과 돌봄 (행동적 차원)
<p>동물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동물 종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각 개체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p>	<p>동물에게 친절해요 동물을 만날 때는 낯선 친구를 대할 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함께 사는 친한 동물이라도 기분을 잘 살피고 대한다.</p>
<p>동물도 아픔을 느껴요 동물은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또 아픔도 느낄 수 있다. 내가 아픈 걸 싫어하듯 동물도 그렇다.</p>	<p>동물을 괴롭히지 말아요 누군가 나를 밀면 다쳐서 아플 수 있는 것처럼 동물도 괴롭히면 아플 수 있음을 알고 괴롭히지 않는다.</p>
<p>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모든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 각자의 삶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삶을 존중받아야 한다.</p>	<p>작은 곤충도 소중히 대해요 작은 곤충도 관찰해 보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방해하지 않는다.</p>
<p>반려동물은 돌봐줄 가족이 필요해요 자연 속의 야생동물과 달리 반려동물은 사람이 가족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줘야 한다.</p>	<p>반려동물을 동생처럼 챙겨줘요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배고프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지, 심심하지 않은지 보살펴 줘야 한다.</p>
<p>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반려동물은 나중에 버려도 되는 장난감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함께해야 하는 생명이자 가족이다.</p>	<p>반려동물을 함부로 키우거나 버리지 말아요 동물을 키울 때는 가족 전체의 동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한번 키우기로 했으면 중간에 흥미를 잃었다고 버리지 않고 평생 책임진다.</p>

- 2013년 3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개 영역에서 유아의 발달과 생활 경험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했다는 점이다.

자연은 단순히 창밖으로 보이는 경관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존하게 하는 기반이다. 사람을 포함한 자연 속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에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동시에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자연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인 아닌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에서

- 이러한 관점이 특히 중요하게 제시되는 영역은 ‘자연탐구’이다. 자연탐구 영역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며, 일상의 여러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과학적 기초 소양을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 자연탐구 영역은 다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로 나누는데, 이 중 ‘과학적 탐구하기’의 구성 내용인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를 통해 유아가 관심 있는 동식물의 성장 및 생태 환경이나 사람의 출생 및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생명체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지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후 초등학교 과학 교과와 ‘생명과 지구’ 내 ‘생물과 우리 생활’ 주제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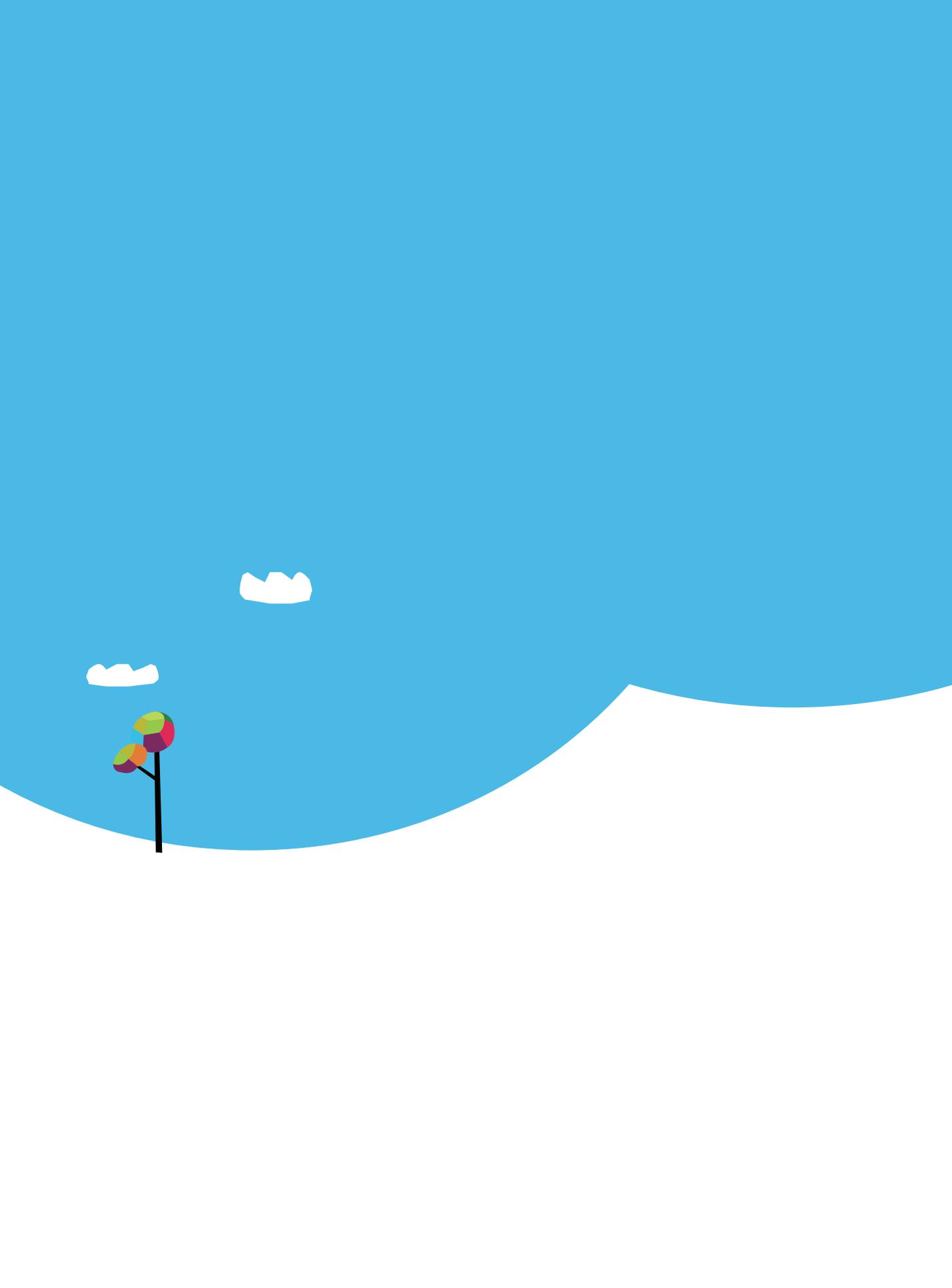
〈표〉 5세 누리과정의 동물보호 관련 내용

영역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과 녹색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과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살펴 보면 동물을 자연환경의 일부로만 대상화하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축산동물, 실험동물 등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구조적 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기도 한다. 이제 동물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한 ‘관계’를 고민해야 할 대상이자, 스스로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약자’로 등장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폭력성과 생명경시 풍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시각에서의 동물보호교육, 생명존중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금까지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대해서 주로 다루온 영역은 ‘자연과학’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탐구’는 관찰이나 기르기 체험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동물의 욕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내용이 많았다. 교육과정 속에서 동물을 과학 탐구의 대상으로 주로 다루는 흐름은, 이후 초중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심지어 ‘해부’ 학습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도 괜찮다는 식의 접근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했다. 동물의 욕구에 대한 이해나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동물 간의 관계를 배우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보호교육이 윤리교육, 또 해외에서는 이른바 ‘시민교육’이나 ‘인도주의 교육’과 같이 사회교육, 인성교육의 일환으로도 다루어지고 있다.

● 유아교육에서 동물을 ‘내용’이 아닌 ‘소재’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자연탐구의 ‘수학적 탐구하기’에서 강아지나 양의 수를 셈할 수도 있고, 예술경험의 ‘예술적 표현하기’에서 동물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는 동물에 대한 교육에서, 그들이 사람처럼 좋음과 싫음,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며, 이는 과학영역을 넘어 사회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범주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을 다룰 때 반려동물도 포함시킨다거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다룰 때 우리 동네의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장

만 5세 유아를 위한 동물보호프로그램

2-1. 프로그램 개발

- A.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 B.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 C.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2-2. 프로그램의 실제

- A. 주간교육계획안
- B. 활동 목록
- C. 대·소집단 활동
- D. 자유선택활동

2-3. 프로그램 활용의 방안과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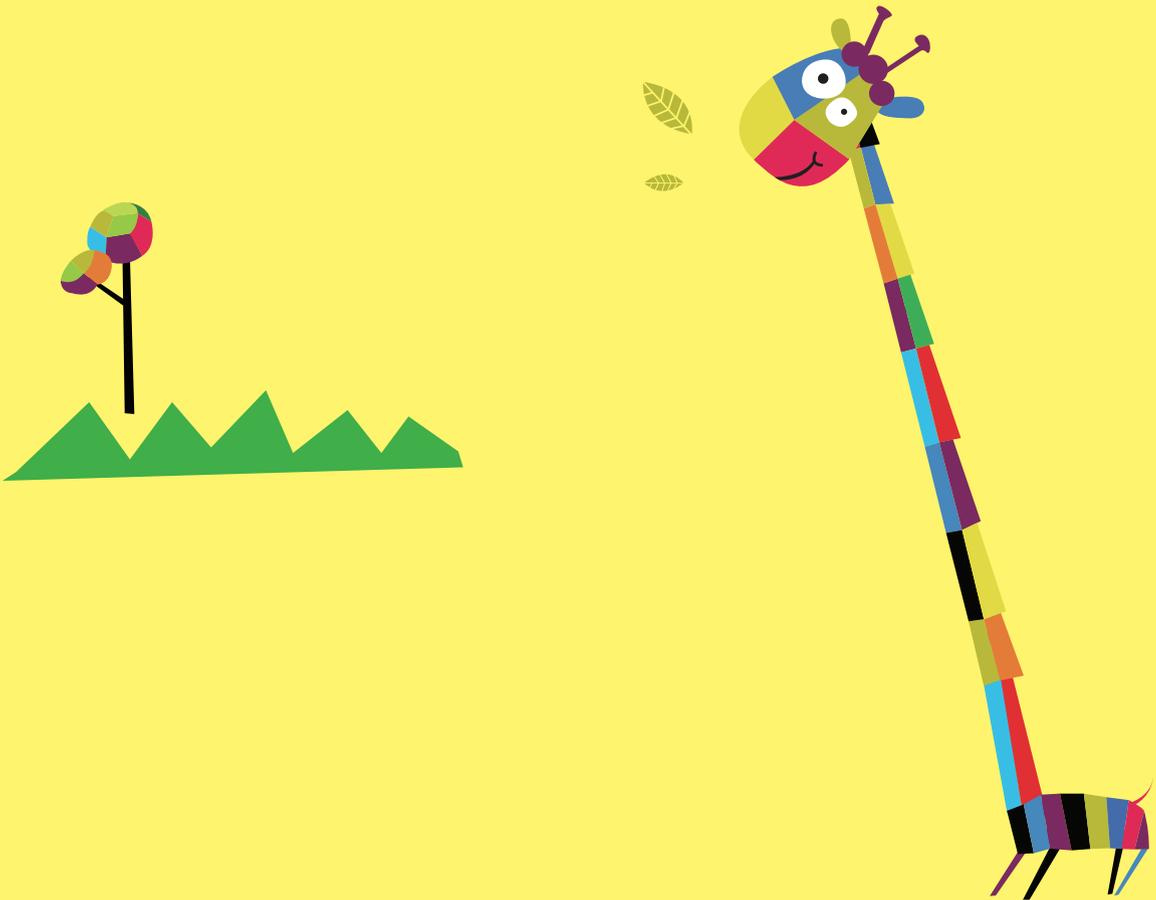
A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유아가 동물이 고유한 삶의 욕구와 지각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여, 동물을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양하고자 한다.

● 목표

- 동물은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아픔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
-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동물을 배려하는 방법을 실천한다.



B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우선 유아의 삶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위주로 구성하였다. 유아에 따라 가정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이미 함께하여 반려동물에 익숙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아들은 주로 일상 속에서 집 안팎의 작은 곤충과 새를 만나거나, 동물원 방문을 통해 동물과 대면하게 된다. 유아들은 길에서 개미, 지렁이를 괴롭히기도 하고, 동물원에서 잠든 동물을 향해 소리를 질러 잠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동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유아가 실제 생활에서 동물과 마주칠 때 그들을 존중과 배려로 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 또한 동물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선정하였다. 개, 고양이, 햄스터와 같은 반려동물 뿐 아니라 동물원의 코끼리와 돌고래, 그리고 우리가 오리털 패딩으로 간접적으로 만나는 오리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이루는 동물들의 상황을 살피며, 그들에게 공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동물들도 자신들의 욕구가 있고,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유아들이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아기는 이런 공감 능력을 기르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기에, 동물도 나와 같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누리과정 생활주제** : 동식물과 자연
- **주제** : 동물보호를 실천해요
- **소주제** : 가족으로 함께 사는 동물 배려하기

바깥에서 만난 동물 배려하기

동물원에 사는 동물 배려하기

● **목표**

- 동물은 사람처럼 여러 가지 욕구와 감정이 있음을 알고 동물에게 공감한다.
-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같음을 이해한다.
- 가족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실외 활동 시 만나는 생활 주변의 동물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중심개념

1. 동물의 욕구

유아들이 동물의 기분을 살피고 동물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도 좋고, 싫은 기분을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낯선 동물의 입장을 살피도록 하는 것은 산책 중인 타인의 반려견에게 선불리 다가가다가 물리거나 하는 사고 방지도 효과적일 수 있다.

2. 동물 복지

동물도 사람처럼 먹이, 서식지, 가족과 친구, 건강, 자유로움 등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한다.

3. 반려동물의 보호

사람과 가족처럼 살아가면서 돌봄과 애정을 주고받는 동물들이 있음을 안다. 특히 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평생 잘 돌봐줘야 하는 책임감을 이해하고, 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4. 생활 주변 동물의 보호

유아들이 실외활동, 산책 등을 하면서 만나는 이름 모를 벌레, 개미, 비둘기, 지렁이, 연못의 물고기 등의 생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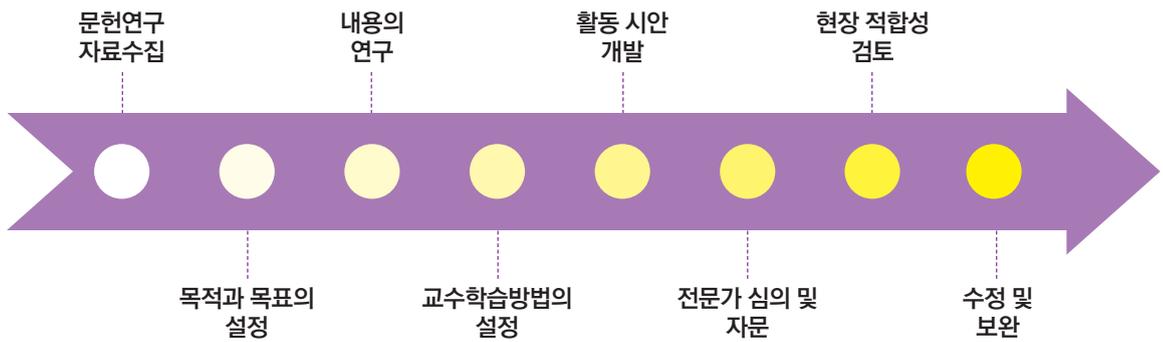
5. 동물원에 사는 동물의 보호

유아들이 종종 방문하는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유아가 배려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곤히 자는 동물을 깨우거나, 사람이 먹는 과자를 던지는 등 동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간다.

C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과정에 따라 개발되었다.



A 주간교육계획안

생활주제

- 동식물과 자연

주제

- 동물보호를 실천해요

목표

- 동물은 사람처럼 여러 가지 욕구와 감정이 있음을 알고 동물에게 공감한다.
-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같음을 이해한다.
- 가족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실외 활동 시 만나는 생활 주변의 동물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자유
선택
활동

쌓기놀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

언어 영역

수 · 조작 놀이 영역

과학 영역

미술 영역

음률 영역

대 · 소
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

동화동극동시

음악

신체

게임

바깥 놀이 활동

가정 연계 활동

월	화	수	목	금
반려 동물을 배려하기	생활 주변의 동물을 보호하기	동물원 동물을 보호 하기	동물원 견학하기	동물보호 캠페인하기
	반려동물 집 만들기		동물원 디오라마 만들기	
	동물 병원 놀이			동물구조대놀이
	*네 마음을 말할게 _78p		코끼리 마음 그림책 만들기	내가 좋아하는 동물 소개하기
	*우리는 같은 마음 _72p	*행복한 돌고래 _84p		
	동물 털 느낌의 옷 관찰하기			
	*먹이통 디자인하기 _96p	*혼자 있고 싶은 동물의 가림막 만들기 _100p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_90p	뮤지컬 라이언킹 영상 감상하기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_40p		*동물원 동물을 배려해요 _60p	*동물에게 필요한 것 _66p
		*감기 걸린 날 _46p		*코끼리 서커스 _56p
다르지 않아 뮤직비 디오 감상하기			*동물배려캠페인 노래 만들기 _52p	
			집으로 돌아간 동물원 동물들	
		땅 위의 작은 동물 을 밟지 않고 반환점 돌아오기		
	작은 동물 만나기		동물 관찰하기	
	동물 보호 실천 약속 만들기			

* 표시가 있는 활동은 계획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 활동은 예시입니다.

B 활동 목록

1. 대·소집단 활동

활동 유형	활동명	누리과정 영역	동물보호교육 내용 영역	쪽
이야기나누기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자연탐구 사회관계	공감과 돌봄	40P
	동물원 동물을 배려해요	자연탐구 사회관계	공감과 돌봄	60P
	동물에게 필요한 것	자연탐구	동물복지	66P
동화·동시·동극	감기 걸린 날	예술경험 자연탐구	동물복지	46P
	코끼리 서커스	사회관계 의사소통	동물복지	56P
음악	동물배려캠페인 노래 만들기	예술경험 사회관계	공감과 돌봄	52P

2. 자유선택활동

활동 유형	활동명	누리과정 주요 영역	동물보호교육 내용 영역	쪽
수·조작 영역	우리는 같은 마음	사회관계 자연탐구	공감과 돌봄	72P
	행복한 돌고래	자연탐구	동물복지	84P
언어 영역	네 마음을 말할게	의사소통 자연탐구	공감과 돌봄	78P
음악 영역	생명과 안전은 소중한요	예술경험 자연탐구	공감과 돌봄	90P
미술 영역	먹이통 디자인하기	예술경험 자연탐구	동물복지	96P
	혼자 있고 싶은 동물의 가림막 만들기	예술경험 자연탐구	동물복지	100P

C

대소집단 활동

1. 이야기나누기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2. 동화

감기 걸린 날

3. 음악

동물배려 캠페인 노래 만들기

4. 동화

코끼리 서터스

5. 이야기나누기

동물원 동물을 배려해요

6. 이야기나누기

동물에게 필요한 것





대·소집단 활동 1 : 이야기나누기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활동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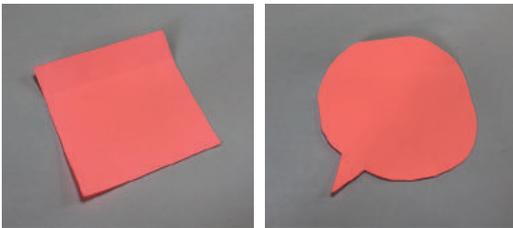
-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동물도 기분이 상하게 함을 안다.
(사회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 사람들이 동물에게 흔히 하는 실수 행동에 대해 알아보며 반려동물의 습성을 안다.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창의 · 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인지적 요소 > 사고의 확장
- 인성 > 배려 > 동식물에 대한 배려

활동 자료

- <사람에게도 기분이 나쁜 상황>, <동물이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 <동물에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의 세 상황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그림 자료
- 말풍선 카드



● 동물의 표정 카드(좋은 기분과 화난 기분)

<p>친구가 싫어해요</p>  <p>먹을 때 건드리면 싫어요</p>	<p>동물이 싫어해요</p>  <p>동물도 먹을 때 건드리면 싫어해요</p>	<p>이렇게 해요</p>  <p>동물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줘요</p>
 <p>친구의 장난감을 뺏으면 안돼요</p>	 <p>동물의 장난감을 뺏으면 안돼요</p>	 <p>동물이 장난감으로 놀이할 수 있게 해요</p>
 <p>잘 때 괴롭히면 싫어요</p>	 <p>동물도 잘 때 괴롭히면 싫어해요</p>	 <p>동물이 잘 때는 깨우지 않아요</p>
 <p>내 맘대로 만지면 안돼요</p>	 <p>동물도 내 맘대로 만지면 안돼요</p>	 <p>조심해서 천천히 동물의 인사법으로 인사해요</p>
 <p>큰 소리를 내면 놀라요</p>	 <p>큰 소리를 내면 동물도 놀라요</p>	 <p>동물 곁에서 조용히 얘기해요</p>

활동 방법

1. 다른 사람과 지낼 때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 처음 만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 있니?
- 무섭거나 화가 났던 적이 있었니?
- 짜증이 났던 적도 있었구나!

2. 그림 자료를 보면서 동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기분이 나쁠까?
- 이 그림 속의 친구들은 동물들에게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지 살펴보자
- 처음 보는 사람이 소리치며 급하게 다가오면 동물의 기분이 어떨까?
- 쿨쿨 자고 있을 때 흔들어 깨우면 기분이 어떨까?
- 먹을 것 주었다, 뺏았다 하면서 약을 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
- 예쁘다고 갑자기 세게 끌어안으면 좋을까?

3. 동물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어떻게 해야 동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 동물들은 혼자 있고 싶을 때에는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
-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동물은 어떤 생각을 할까?

4. 말풍선 꾸미기로 동물의 마음을 표현해본다.

- 동물의 마음이 어떨지 말풍선에 적어 보자.
- '너는 내가 다가갈 때까지 기다려 줘서 좋아!' 라고 말하는 것 같구나!
- '너는 내가 졸릴 때 방해하지 않아서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

5.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림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바람직한 행동은 기분 좋은 동물 얼굴을, 부적절한 행동에는 나쁜 기분의 얼굴을 표시를 해보며 수수께끼 놀이를 한다.

- 먹이를 먹는데 너무 가까이에서 있네!
- 적당한 거리에서 조용히 말하니까 무섭지 않은 표정이야
- 먹이를 높이 들고 먹어보라고 놀리면 기분이 어떨까?

6. 오늘 이야기나누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동물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처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동물을 만나면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동물 마음을 생각해보아요.

활동 유의점

-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물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음을 알고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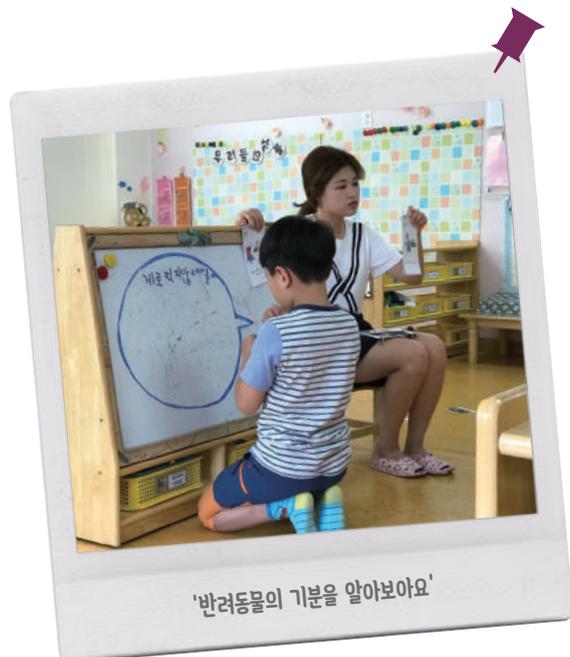
- 상황 그림을 보며 동물의 감정에 공감하는가?
- 반려동물(개와 고양이)의 행동 특성을 보고 감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확장 활동

- 동물 인형들을 가지고 동물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보는 역할놀이를 한다.

가정 연계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유아는 자신이 알게 된 반려동물의 행동 습성을 조사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본다.





동물을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원에서
낮선 강아지를 향해
손을 내밀며 뛰어가면,
강아지가 놀라요

공원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길가나 공원에서 강아지를 보면, 막 뛰어오거나 무턱대고 손을 뻗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강아지는 누가 정면에서 뛰어오면 자신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특히 몸집이 작은 소형견은 더 무섭겠지요. 막 뛰어가거나 갑자기 만지면, 강아지와 반려인이 놀라서 싫어할 수도 있고, 혹시 강아지가 어린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이야기나누기 :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 동물을 배려하는 어린이가 알아야 하는 지식

1. 강아지는 앞에서 누가 뛰어오면 공격,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2. 강아지는 처음 인사할 때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먼저 만지면 안돼요.

● 동물을 배려하는 어린이가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고 할 수 있는 행동

1. 강아지의 반려인(보호자)에게 인사하고 “제가 만져도 되나요?”라고 물어 본다.
2. 반려인이 괜찮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강아지와 인사한다.

● 처음 만나는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1. 강아지의 앞이 아닌 “옆”쪽에 앉아서 손등을 천천히 내밀고 기다린다.
2. 강아지가 다가와 “냄새”를 맡도록 가만히 있어야 한다.
3.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맞추거나 꼬리를 흔드는 등 좋아하면 “턱밑”을 쓰다듬어준다.
(강아지가 하품을 하거나 혀로 입가를 핥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 손을 뺐다.)

● 동물을 배려하려면, 먼저 그 동물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해요.

동물들은 각자 그 동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개체마다 성격이 달라요.
강아지들도 각각 살펴보면 우리처럼 누구는 활발하고 누구는 수줍음을 타요.
또 동물들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특히 잘 모르는 동물을 무턱대고 만지면 동물이 힘들어한대요.

● 처음 만나는 동물은 처음 만나는 친구처럼 대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 친구를 소개받으면 어떻게 행동하지요?
먼저 친구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안녕”하고 서로 인사를 하지요.
서로 미소 짓고 같이 놀면서 천천히 친해지잖아요.
동물도 우리 친구처럼 자신의 기분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만지는 인형이 아니에요.
동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사를 건네야
동물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대·소집단 활동 2 : 동화

감기 걸린 날



활동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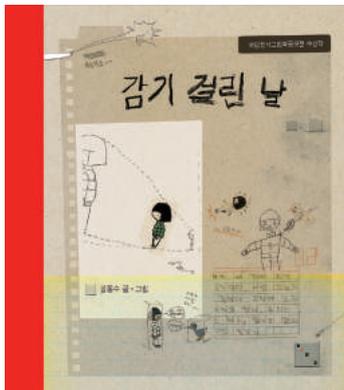
- 동화 주인공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한다.
(의사소통 > 듣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 동물을 존중하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자연탐구 >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창의 · 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인지적 요소 문제 해결력
- 인 성 : 배려 동 식물에 대한 배려

활동 자료

- 동영상 ‘감기 걸린 날’ (https://www.youtube.com/watch?v=2BabznUI4_U)
- 그림책 ‘감기 걸린 날’ (김동수 지음, 2002, 보림)
- 인조 털 옷과 오리털 옷



활동 방법

1. 그림책이나 동영상으로 「감기 걸린 날」을 감상한 후 회상한다.

- 엄마가 오리털 잠바를 사주셨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 주인공의 꿈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 오리들은 주인공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 왜 주인공은 잠바에서 오리털을 하나씩 다 뽑아서 오리에게 주었을까?
- 주인공은 감기에 걸렸네! 오리랑 눈사람도 감기에 걸렸을까?

2. 사람들이 동물의 털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동물들의 털로 만든 옷을 본 적 있니?
- 왜 동물의 털로 옷을 만들었을까?
- 동물들이 털을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기분은 어떨까?
- 동물들은 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 동물에게서 털을 얻을 때 동물이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구나!

3. 인조 털(옷)을 탐색하고 입어보며, 오리털 옷과 비교해본다.

- 동물의 털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옷감이 있는데 한번 관찰해보자
- 만져보니 느낌이 어떠니?
- 인조 털옷을 입는 것은 어떨까?
-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실로 만든 털옷을 입으면 동물이 아프거나 죽지 않기 때문이구나!

4. 동물을 배려하기 위해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눈다.

- 부드럽고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털을 얻으려고 동물들을 사냥하고, 키워서 털을 뽑아 파는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 털 때문에 동물이 죽거나 아프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지금 동물의 털로 된 옷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앞으로 털의 느낌이나 가죽의 느낌이 나는 옷을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5. 그림책의 캐릭터로 막대인형을 만들어 언어영역에서 역할놀이를 해보기로 한다.

- 너희가 만약 오리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니?
- 너희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니?
- 눈사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활동 유의점

- 털을 뽑힌 오리들에게 주인공이 갖는 따스한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난방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유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 인조 털옷을 입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옷을 이미 입거나 가지고 있는 유아가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활동 평가

- 동화 주인공이 잠바의 오리털을 오리들에게 주는 이유를 아는가?
- 동물 털옷이 아닌 인조 털 옷을 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확장 활동

- 인조털과 인조 가죽의 조각, 그 외의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옷감들을 과학영역에서 관찰한다.

가정 연계

- 옷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다양한 방한 용품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본다.



tip

'감기 걸린 날' 활동을
진행하는 날에는
선생님이 모피, 가죽을
가급적 입지 않도록
유의를 주세요!



감기 걸린 날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동화 : 감기 걸린 날



동물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나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동물을 생각해주세요

윤리적 소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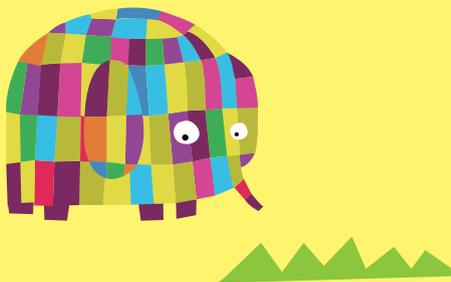
윤리적 소비는 생명, 인권, 정의,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여, 일상의 소비생활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은 것을 사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의 모피를 이용한 의류를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보온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모피가 인류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또 인간이 동물의 피부털만을 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이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잃어오만 하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 고찰의 결과로 모피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생명, 환경, 인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보다 적게 일으키는 친환경 생산품을 선택하는 것, 또는 지역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거나 어린이를 착취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생산된 것을 거부하고 대안을 찾는 것 등을 우리는 윤리적 소비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하는 SNS에서도 동물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한 윤리적 소비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많은 조회를 받기도 합니다. 한 예로 가능한 한 큰 모피를 얻기 위해 여우를 좁은 철창에 가두고 살을 심각하게 찢어서, 여우가 눈도 뜨기 힘들어 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퍼졌을 때, 많은 이들은 “동물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피를 입어야 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최근 포털사이트 메인에 ‘동물’ 주제가 개설되는 등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때로는 귀엽고 때로는 신비로운 그들의 매력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실제 여러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의 실태에 공감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소비부터 바꾸는 실천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물을 고려한 소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물의 고통을 함께 줄어나갈 수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잔인한 관심도 조금씩 사라져갈 것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동화 : 감기 걸린 날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 대안을 찾아라!

분야	소비	문제점	대안
의	모피 의류(모피코트, 털목도리, 장식 등)	인간의 의류문화와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동물이 피부의 털이나 가죽만을 제공하기 위해 고통받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희생임	모피가 쓰이지 않은 옷 인조털 옷
	오리털, 거위털 점퍼		웰론, 신슐레이트 등의 인공 보온충전재로 사용한 점퍼
	가죽 옷(가죽자켓, 무스탕 등)		다른 천으로 된 옷 인조가죽(합성피혁) 옷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과 샴푸		동물실험 하지 않은 화장품과 샴푸, 세제 등을 이용
식	공장에서 학대받은 축산동물의 고기	동물의 습성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	채식 동물복지농장 동물의 고기
주	가죽 소파	반드시 동물을 이용해야 한다기보다 으레 그렇게 해왔기에 계속되는 동물 이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천으로 된 소파
	모피 러그		면 등을 이용한 러그

동물복지농장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농장명	소재지	연락처	구매처
산란계 · 계란	푸른들농장	강원 영월군	010-4657-3306	직접 연락
	서산기쁨농장	충남 서산시	010-8596-3580	www.sjoy.moddo.at
	예산다예	경남 의령군	010-5261-1538	직접 연락
	다란팜	전남 담양군	061-383-6528	www.daran.co.kr
	오탄농장	강원 춘천시	033-264-2525	www.yjegg.com
	에덴농장	경기 여주군	031-884-5772	직접 연락
	다솔농장	전남 화순군	061-373-2017	blog.naver.com/33291
	청솔다정원	경남 하동군	070-7135-3693	울가홀푸드
	명천농원	강원 횡성군	033-343-9906	cafe.naver.com/mcnongwon
돼지농장	풀미곶노티농장	충북 단양군	043-423-7164	울가홀푸드
	강산이야기	전남 해남군	061-535-2000	kangsanstory.com , 현대백화점
	서지농장	경기 이천시	031-632-3691	신세계백화점 (명동/도곡/센텀/마린/광주/죽전), AK백화점(분당/수원/평택/구로)

* 위 표의 출처는 카라의 캠페인카드 “공장 대신 농장을”이며, 위 농장 외에도 동물복지계란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숍에서도 많이 판매하니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집단 활동 3 : 음악

동물배려 캠페인 노래 만들기



활동 목표

- 동물을 배려하는 행동에 대한 생각을 노랫말로 표현한다.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하기)
- 동물 보호 캠페인을 하는 이유를 안다.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창의·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인지적 요소 문제 해결력
- 인 성 : 존중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활동 자료

- 간단하고 단순한 멜로디의 유아들에게 익숙한 노래 음원
- 다양한 악기
- 녹음기
- 캠페인 포스터



활동 방법

1. 캠페인 포스터나 노래를 소개하며 만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니?
 - 혹시 캠페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 캠페인을 위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니? 이 캠페인 노래는 왜 만들었을까?

2. 동물을 배려하기 위해 캠페인 노래를 만들어 보기로 한다.
 - 동물을 배려하는 캠페인 노래가 있는지 찾아볼까?
 - 우리가 동물 배려 캠페인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 잘 아는 노래에 가사만 바꿔서 만들어 볼까?

3. 친숙하여 즐겨 부르는 멜로디에 동물 배려의 노랫말을 만들어본다.
 -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위해서는 어떤 노랫말을 만들까?
(예: 집에서 기르는 동물! 동물도 가족이에요. 버리지 마세요. 돌봐주세요.)
 - 동물원에서 지내는 동물을 위해서는 어떤 노랫말이 좋을까?
(예: 동물원 동물! 동물이 스트레스 받아요. 괴롭히지 마세요. 조용히 보세요.)
 - 집 밖에서 자연에서 사는 동물을 위해서는 어떤 노랫말을 만들까?
(예: 산책하며 만나는 동물! 생명은 소중해요. 죽이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아요.)

4. 만든 노래를 익숙하게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보고 녹음도 한다.
 - 멜로디에 맞춰서 노랫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자
 - 이번에는 함께 노랫말을 붙여서 불러보자
 - 악기로 박자와 리듬을 연주하며 불러보자
 - 녹음을 해서 들어볼까?

5. 캠페인 노래를 사용할 방법에 대해 의논해본다.
 - 녹음한 노래를 어떻게 사용해볼까?
 -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니?
 - 노래를 어떻게 들려주면 좋을까?

활동 유의점

- 캠페인의 의미와 캠페인 노래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노랫말을 만들도록 한다.
- 노래 말을 너무 어렵지 않게 쉬운 용어로 만든다.

활동 평가

- 캠페인의 의미를 이해하는가?
- 캠페인 노래를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확장 활동

-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산책 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동생 반에 가서 동물 배려 캠페인을 직접 실천해본다.
- 인터넷 공간에 유아들이 만든 캠페인 노래를 게시한다. 유아들의 포스터 그림과 노래 가사를 자막으로 넣어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해본다.

가정 연계

- 부모들이 유아들과 함께 캠페인 노래와 포스터를 가까운 이웃과 친척에게 소개하여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본다.

동물도 다르지 않아요

- 온누리반 지음

주변의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동물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지켜요
잠자는 동물들을 깨우지 마세요
동물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음악 : 동물배려 캠페인 노래 만들기

캠페인의 의미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는 다양한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단체들의 캠페인도 있고, 정치인을 뽑기 위한 선거 후보자들의 캠페인들도 있고, 우리가 TV에서 자주 목격하는 광고들도 일종의 캠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도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농장동물의 감금틀을 추방합시다”, “동물실험을 규제합시다”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캠페인은 꼭 단체, 정치인, 기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여러 멋진 캠페인들은 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작은 결심과 움직임에서 시작되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작은 캠페인을 사람들이 봐줄까?”, “내가 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정말 세상이 변할까?”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노력이야말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크로 놀라운 힘입니다.

아래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물들을 위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열 살 소녀 모니카 플럼은 일반적인 산소마스크가 개,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굴 구조가 달라서 사람용 산소마스크는 위급한 동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니카는 동물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산소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이 활동을 알리기 위해 펫마스크닷컴(Petmask.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모니카의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버지니아를 비롯한 여러 곳의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에 300개 이상의 마스크가 기증되어 많은 동물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열 살이던 스테이시 힐먼은 경찰견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읽다가 경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칼이나 총으로 무장한 범인과 대치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찰견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방탄조끼 없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테이시는 즉시 경찰서에 가서 이 문제를 위한 기금 마련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 모금을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스테이시가 만든 ‘경찰견을보호하기위한기금(Pennies to Protect Police Dogs)’은 공식 자선단체가 되었고 지금까지 25만 달러 이상을 모아 수백 마리 경찰견에게 방탄조끼를 선물했다.

1987년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니퍼 그래엄은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실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명을 희생시키는 해부실습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는 학생들이 원치 않는 실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하여 11개의 주에서 학생들이 동물실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 『개에게 인간은 친구일까?』 (로브 레이들로 지음 | 박성실 옮김 | 2014년 | 책공장더불어 펴냄)
- 아이들의 동물 해부, 반드시 필요한가?(2011.9.6 | 오마이뉴스 | 카라)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158



대·소집단 활동 4 : 동화

코끼리 서커스



활동 목표

- 서커스 훈련을 받는 동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관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 서커스 코끼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적는다.
(의사소통) 쓰기> 쓰기에 관심가지기)

창의 · 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인지적 요소 문제 해결력
- 인 성 : 존중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활동 자료

- 그림책 : ‘코끼리 서커스’(곽영미 지음, 김선영 그림, 2015, 숨쉬는책공장)
- 북아트용 자료 : 그림책의 서커스 장면이 나오는 코끼리의 말풍선을 넣은 8쪽 아코디언식 소책자



활동 방법

1. 그림책「코끼리 서커스」를 사람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와 코끼리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를 비교해 가며 들어본다.
 - 서커스를 보러 가는 친구와 서커스를 준비하는 코끼리의 생각과 기분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자!
 - 이 장면에서 친구는 기분이 아주 좋구나!
 - 그런데 코끼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2. 동화를 듣고 알게 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니?
 - 광영미 작가님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 서커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코끼리는 어떤 일을 겪었니?
 - 서커스를 보러 온 친구들이 코끼리의 마음을 알까?

3. ‘코끼리 서커스’의 그림책에 말 주머니를 붙이며 만화책으로 만들어본다.
 - 그림책의 그림만 그려져 있고 글자가 없는 곳에 우리가 말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림책을 만화로 만들어보자!
 - 말 주머니 종이를 어디 어디에 붙이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 말 주머니를 친구와 함께 의논해서 적어볼까?

4. 친구들과 함께 만든 책의 감상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 반에서 새롭게 만든 만화 ‘코끼리 서커스’를 우리 같이 읽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도서영역에서 읽을 때 어떤 것을 기억하고 읽으면 좋을까?
 - 우리가 만든 책을 누구와 함께 보고 싶니? 우리 반 외에 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니?
 - 동생들에게도 읽어주고 싶구나!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읽고 싶구나!

활동 유의점

- 그림책의 대비 내용을 유아들이 먼저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장면마다 여유를 주며 진지하게 읽는다.
- 다양한 크기의 말주머니를 넉넉히 준비한다.

활동 평가

- 그림책의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며 말주머니를 표현했는가?

확장 활동

- 유아들이 만든 말풍선을 대본으로 하여 녹음을 하며 오디오 북이나 영상으로 제작하여 동생 반에 들려준다.

가정 연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괴롭히는 사업에 대해 소비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아들이 만든 그림책과 함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동물쇼, 동물체험은 NO!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기사 읽기

서울동물원이 동물을 이용한 공연을 모두 폐지하고, 앞으로도 일절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물원은 지난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돌고래쇼를 폐지하고,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지난 7월 제주바다에 방사한 데 이어 올봄 홍학쇼를 폐지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방울이'가 해온 관람객과 사진 찍기 행사도 중단했다.

2013년 10월 31일 문화일보 기사

2013년 7월 제주 바다로 풀려난 제돌이는 사춘기 나이 때 여자친구와 함께 무리로부터 조금 떨어졌다가 불법포획망에 걸렸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해 먹었기에 인간이 주는 얼린 죽은 고기를 처음에는 거부하던 돌고래는, 배고픔 속에서 결국 그 고기를 받아먹게 됩니다. 또 좁은 수조에서 자신이 내보내는 초음파가 난반사되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적응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인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show body'가 되어갑니다.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동화 : 코끼리 서커스

관람객과 사진찍기를 하던 방울이는 너무 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던지 공연이 끝날 때 짙은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흥미를 위해 다른 동물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이제 사람들은 동물쇼가 동물학대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며, 점차 동물의 생태 관장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우리의 '생태 체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기사 읽기

“OO생태학교에 갔는데, 사육사가 “고슴도치는 물에서 수영을 잘하고, 물에 들어가면 가시를 안 세워서 만지기 쉽다”며 고슴도치들을 물에 풀어놓았고 아이들은 그들을 만졌습니다. 고슴도치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고슴도치는 귀에 물이 들어가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관람객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안배받지 않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슴도치가 물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체험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생태체험전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진 찍기 편하라고 잡고 있는 동안 동물이 싫어하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생태 설명을 해주려 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설명에는 관심이 없고 만지고 싶다는 말만 하는 걸 보며, 교육이 아니라 동물들을 고문하는 것이 체험전의 실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2017년 실제 카라에 들어온 제보 내용

동물을 만나자마자 가까이에서 만지게 하고,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게 해주는 것은 생명 존중이라는 교육의 목적과 어긋납니다. 동물이 하루종일 어린이들 손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동물도 자기만의 욕구가 있고, 우리가 그걸 존중해 줘야 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거짓말과 괴리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물을 좋아한다고 느끼면서도, 물건으로 다루고 학대하는 실수를 하도록 하는 인식의 괴리 말입니다.

동물의 생태에 대한, 그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이름뿐인 '생태교육'에 남은 건 가장 쉽고 인간중심적인 '만지기'만 남은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체험 활동은 동물학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물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을 표현하고 즐기면서, 동물에 대한 존중까지 함께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실천 방법

- '이동동물원', '동물쇼', 만지기 위주 '동물체험' 처럼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곳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동물원에 간다면 동물을 배려하기 위한 약속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 연계활동 : 이야기나누기 '동물원 동물을 배려해요'



대·소집단 활동 5 : 이야기나누기

동물원 동물을 배려해요



활동 목표

- 동물원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알아본다.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동물원 견학을 가기 전의 약속을 만든다.
(사회관계) 사회에 관심 갖기 >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창의·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인지적 요소 문제해결력
- 인 성 : 존중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활동 자료

- 서울대공원 관람예절 교육영상
- ebook (http://grandpark.seoul.go.kr/korea_grand/animal/enjoy/enjoy05.jsp?menuid=41250)
- 동영상 (<http://blog.naver.com/finezoo/50186857557>)



활동 방법

1.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 동물원에 다녀와서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해보자
 - 동물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되어 있니? 왜 철망을 해놓고 조심하라고 써있을까?
 - 펭귄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원래 살던 곳과 동물원은 어떻게 다를까?

2.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들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 나눈다.
 - 자고 있는 동물들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깨우면 어떨까?
 - 우리가 먹던 간식을 동물에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
 - 먹이를 줄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약을 올리는 행동은 괜찮을까?

3. 공원 관람예절 교육영상을 함께 보면서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실수 행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
 - 동물원 놀러간 친구들이 실수하는 행동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동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했는지 알아보자!
 - 왜 이런 행동은 동물들이 싫어할까?
 - 동물원 동물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4. 동물원 동물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과 배려하는 행동을 동물역할과 관람자 역할을 정하여 몸으로 표현해본다.
 - 동물원 동물이 되어 보고 싶은 친구들은 동물의 기분을 표현해보자
 - 동물원에 놀러간 사람들의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배려하는 행동과 배려하지 않은 행동을 하나씩 흉내내보자
 - 친구들은 표현하는 친구들의 몸짓과 표정을 보고 O표와 X표를 손으로 나타내보자!

5. 쌓기 놀이영역에서 만든 동물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동물들과 친구들의 역할을 정해서 놀이해본다.

활동 유의점

- 관람예절 동영상의 글을 읽어주어서 어떤 상황인지 유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
- 몸짓으로 표현을 할 때 울타리를 정해주어 동물과 사람역할을 맡은 유아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활동 평가

- 유아들이 동물원에서의 관람 예절을 이해하여 말과 행동으로 표상할 수 있는가?

확장 활동

- ebook을 컴퓨터 영역에서 보거나, 출력하여 그림책으로 만들어 유아들이 도서영역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관람예절 동영상 관람 후 자동차 텐트를 동물원 우리라고 생각하고 동물원 동물과 관람객 역할을 해보는 유아들

동물원 관람 에티켓 10계명

1.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동물이 먹는 풀도 주지 마세요.
동물마다 정해진 식단이 있어요.
2. 자는 동물을 깨우지 않게 조용히 관람하세요.
소리지르거나 유리창을 두드리면 동물들이 놀라요.
3. 동물 우리에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동물들에게 물리거나 다칠 수 있어요.
4. 동물에게 돌이나 쓰레기를 던지지 마세요.
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이물질을 먹고 아파해요.
5. 사진을 찍을 때는 플래시를 꺼주세요.
빛이 반사되어 동물들이 놀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6. 눈으로만 관람해 주세요.
만지거나 먹이주기 체험은 정해진 동물만 해요.
7. 혼자 있는 동물을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혼자 생활하는 동물도 있어요.
8. 사육사노트와 설명판을 먼저 읽고 관람하세요.
동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9.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10. 관람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동물들도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경'하는 동물들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는 것은 아마 우리와 다른 모습과 힘을 가진 그들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게 좁은 곳에 갇혀진 동물들의 눈빛은 어떨까요? 그들의 과거는 어떠했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처해질 상황은 어떨까요?

- 동물들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동물원에 전시됩니다.
- 사람들에게 잘보이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배고픔에 시달리고, 종종 얻어맞곤 합니다.
- 너무 작은 공간에 갇혀 점점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고통이 극에 달해 미쳐버리기도 합니다.
- 사람을 따라하도록 강요받고, 무조건 따르고 호감을 보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갑자기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한 기린은 알고 보니 목에 30cm 자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경'하는 동물들의 삶은 지금 너무나 비참합니다.

동물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들의 무한 희생과 고통 위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원에 가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동물사의 흠이 가까이 다가간 아이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맹수가 조용히 쉬고 있거나 숨어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차갑고 아픈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고,

주변에 전기철책을 쳐놔서 숨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온종일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가두고 '구경'하려고만 한다면

기린과 같은 동물원 동물들의 고통과 죽음은 반복될 것입니다.

※ 선진 동물원은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을 곳을 꼭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케이지에 넣어 전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넓고 동물의 원 서식지와 최대한 가까운 공간에 머물도록 하며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숨겨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연계활동 : 미술 '동물의 가림막 만들기'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이야기나누기 : 동물원 동물을 배려해요

동물원, 그 안에서 숨쉬는 동물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 주세요!

- 과자나 물건을 던져주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는 각종 음식이나 이물질은 동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만질 수 있더라도 만지지 말아 주세요.
당신만은, 동물이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아 주세요.
벽을 두드리거나 철창을 흔드는 일을 하루종일 겪는 동물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 동물쇼를 관람하지 말아 주세요.
관람하는 사람의 인원이 대폭 줄어야 악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항의해 주세요.
동물의 소극적 행동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심을 지닌 관람객이 되어 주세요.
-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아프지 않은지, 안정되어 있는지 살펴주시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해 주세요.
- 동물원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청원해 주세요.
동물을 좋아하는 후세대들이 생태공원에서 더 행복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사진 출처: Google)

인간이 전시했던 또 다른 동물을 아시나요?

- 1903년 일본 오사카 박람회, 인류학자 쯔보이 쇼고 주도로 한국인 2명 전시
-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 '진화가 덜 된 이상한 사람들' 전시관에 아프리카 피그미족 오타 뱃가와 동료들 전시
- 인종의 우열에 대한 학설이 득세하던 시기, 상냥한 성격의 오타 뱃가는 인기를 끌었고, 뉴욕의 자연사박물관과 브롱크스 동물원에 전시되다가 1916년 자살

한 존재를 그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떼어내어 '전시'한다는 것,
그들을 가둠으로써 이익을 보는 이와 그들을 구경하는 이의 욕심이 만드는 폭력 아닐까요?



대·소집단 활동 6 : 이야기나누기

동물에게 필요한 것



활동 목표

-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동물에게 필요한 것을 추론해본다.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동물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지 않음을 안다.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창의·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인지적 요소 문제해결력
- 인 성 : 존중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중

활동 자료

-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아요> 표

활동 방법

1.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누며
도표에 유아들의 의견을 그림이나 글로 적는다.
 -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 동물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표시해보자
2.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도표에 그림이나 글로 적는다.
 -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은 무엇이 있니?
 -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가로제목의 빈 칸에 더 적어보자
3.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 ‘어린이’도 적어볼까?
4. 유아들이 팀을 나누어 각각의 동물 중 하나를 나누어 토론하며,
각 동물들에게 필요한 것에 표시한다.
 - 어떤 동물에 대해서 표시해보고 싶니? 강아지를 해보고 싶은 친구는?
 - 무엇으로 표시할까? 세로 칸의 것이 그 동물에게 필요하다면 그 칸에 동그라미를 표시해보자
5. 팀별로 유아들이 표시한 내용을 모두 모아서 표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한다.
 - 강아지를 맡았던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표시한 것을 알려줄까?
 - 새를 맡았던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 해줄 수 있니?
 - ‘어린이’를 맡았던 친구들도 이야기해주겠니?
6. 사람이나 동물이나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모두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되어야 함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사람은 집, 돌봐주시는 어른, 물, 의사, 음식, 친구, 이름도 필요하구나!
 - 그럼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떡니?
 - 동물에게 필요한 것 중에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네!

활동 유의점

-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개념을 유아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도표가 분리되었다가 결합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든다.

활동 평가

- 동물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음을 유아들이 이해하는가?
- 가로 세로의 매트릭스 차트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표시하는가?

확장 활동

- 도표 용지를 수조작영역에 비치해두어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나타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가정 연계

- 도표 용지를 집에서 보내어 유아들이 교실에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식물을 성장조건을 가족과 함께 조사해보도록 한다.

4학년 1학기 생활과학교과 2차시 "우리 동물 친구의 행복조건을 살펴보자!"

이타 영 소망반				고양이	독수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동물복지센터 제작 / 김희 수필가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이야기나누기 : 동물에게 필요한 것

‘동물’에게 필요한 것

사람도, 다른 동물들도 ‘동물’이고, 어떤 ‘종(種)’이며, 특정 ‘개체(個體)’입니다. 특히 우리가 돌봄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의 경우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 뿐 아니라, 그 종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돌봄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그 개체 특유의 성격과 선호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동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가 1996년에 제정한 ‘동물의 5대자유’를 통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동물의 5대 자유

- 갈증 배고픔,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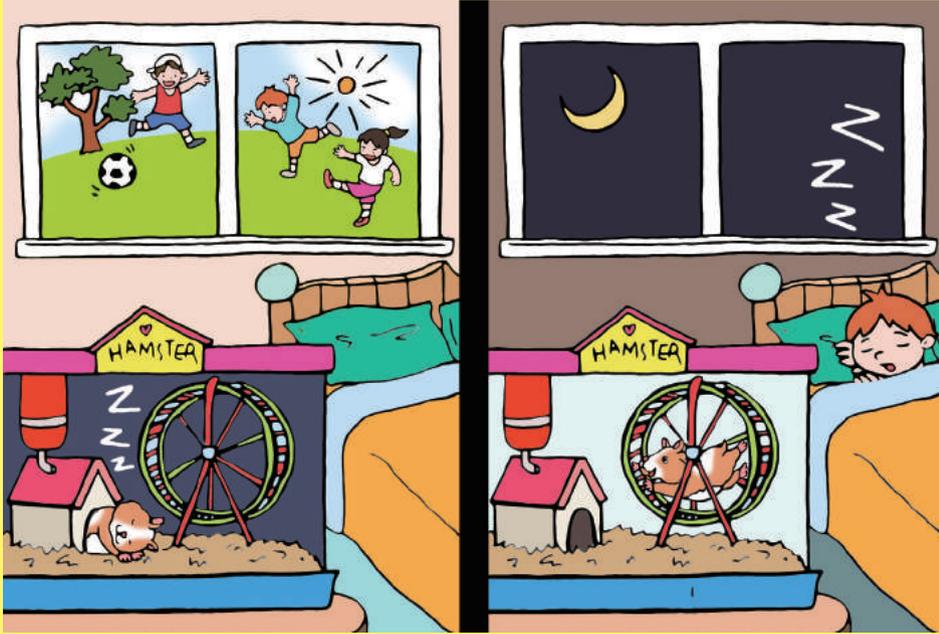
동물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영양상태가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통증이나 두려움, 고통과 같은 불쾌한 상태를 겪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돌볼 때는 이 항목에 비추어 복지상태를 판별해볼 수 있습니다.

그 ‘종’에게 필요한 것

위의 동물의 5대 자유에는 ‘해당 종에 맞는’이라는 전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행성인 햄스터의 경우 낮에는 은신하여 잠을 자고, 밤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낮에 누군가가 깨운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대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는 인간 어린이가 야행성인 햄스터를 키울 때는 이런 ‘종(種)’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여 고려해야 하는 특성으로는 먹이(특별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 서식환경(적정 넓이, 건습 여부, 조도, 소음), 생활주기(주/야행성, 수면량), 사회성, 이동방식(걷기, 날기, 헤엄치기), 습성(달리기, 사냥본능, 숨기), 생식방식(번식 시 얼마나 많은 새끼를 어느 주기로 낳는지), 건강을 위한 중성화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그 '개체'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다른 이와 관계에서 자신을 단순히 '동물', '인간'이라는 말로는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동물들 역시 돌봄 관계를 맺다 보면 그 개체만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고양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각 고양이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 문밖에서 나는 소리에 대한 반응, 식욕과 식탐 등이 제각기 다르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한 동물을 돌볼 때는 그 동물로서의, 해당 종으로서의 특성 뿐 아니라 그 개체에 대한 관찰과 파악 역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야생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기니피그의 경우 사회성이 높아 혼자 키우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마리를 더 데려와 합사할 때 오히려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기니피그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새로운 기니피그를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하고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개체의 특성을 잘 살피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생명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의미 있지만, 그만큼 섬세한 노력과 책임감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자 할 때는 그 종의 특성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물을 만나게 된다면 그 동물의 성격과 선호에 대해 정성껏 파악하는 것이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습니다.

D

자유선택 활동

1. 수학

우리는 같은 마음

2. 언어

네 마음을 말할게

3. 수학

행복한 돌고래

4. 음율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5. 미술

먹이통 디자인하기

6. 미술

혼자 있고 싶은 동물의 가림막 만들기





자유선택 활동 1 : 수학

우리는 같은 마음



활동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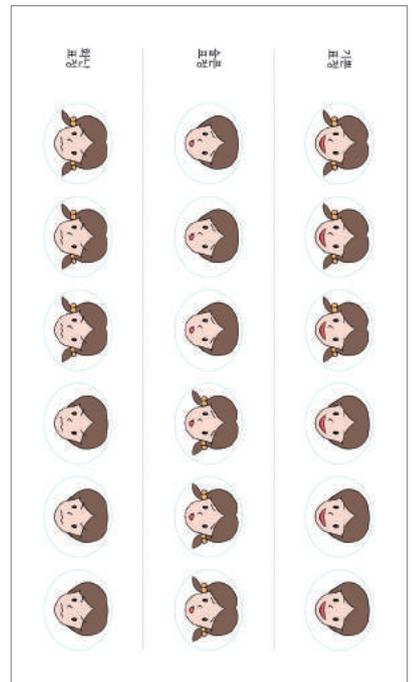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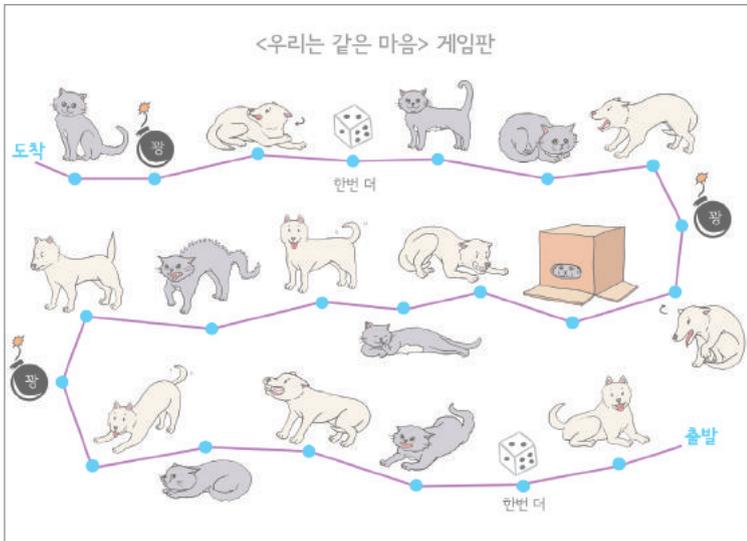
- 동물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다.
(사회관계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주사위 게임을 하며 동물의 감정과 관련된 행동특성을 말할 수 있다.
(자연탐구 >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창의·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인지적 요소 사고의 확장 / 성향적 요소 - 개방성
- 인 성 : 배려 동식물에 대한 배려

활동 자료

- 개와 고양이의 몸짓 표정이 있는 포스터
- 게임판
- 얼굴표정 카드(기쁜 표정, 슬픈 표정, 화난 표정)



활동 방법

1. 개와 고양이의 몸짓 표정 포스터를 보며 어떤 상황과 관련된 것인지 이야기한다.

- 어떤 얼굴일까? 어떤 마음이 들 때 이런 얼굴을 하게 될까?
- 기쁜(슬픈, 화난) 마음이 든 적이 있니?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니?

2. 개와 고양이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본다.

- 개와 고양이도 기쁘거나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될 때가 있을까?
- 개와 고양이는 언제 기쁜(슬픈, 화난) 마음이 들까?
- 개와 고양이는 기쁘다는(슬프다는, 화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 만약 내가 개나 고양이라면 어떻게 보여주고 싶니?

3. 포스터의 글을 손으로 가리며 그림의 동물 감정에 대해서 짐작해보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본다.

-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 두 귀는 어떻게 하고 있니?
- 두 눈을 보니 어떤 마음이 느껴지니?
- 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 꼬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4. 게임판을 소개하며 게임의 방법을 알아본다.

〈활동방법〉

- ① 두 명의 유아가 순서를 정한 후 말을 선택해 출발점에 놓는다.
- ②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움직인다.
- ③ 개와 고양이의 행동을 보며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이야기한다.
- ④ 개와 고양이의 감정에 알맞은 사람의 얼굴 표정카드를 붙인다.
- ⑤ 말이 도착점에 오면 게임이 끝난다.

5.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해 본다. 게임이 익숙해지면 게임 말의 수를 늘리거나 규칙을 다시 정하여 반복해본다.

6. 게임을 해본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 한다.

- 개와 고양이도 기분이 나쁘면 표정과 몸짓이 달라지는구나.
- 우리들처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네.

활동 유의점

- 개와 고양이의 행동이나 자세를 보고 감정을 맞추는 것이 아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활동 평가

- 개와 고양이가 다양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가?
- 개와 고양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 특성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가?

확장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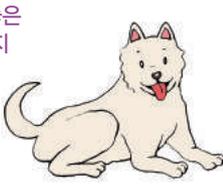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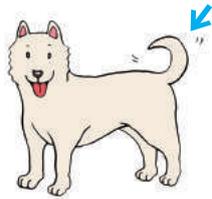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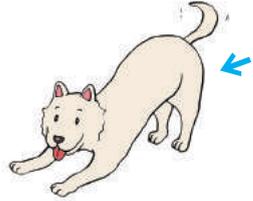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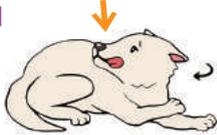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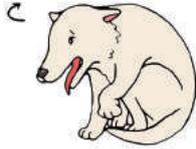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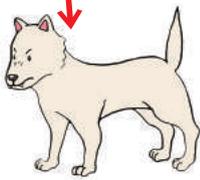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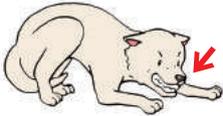
- 감정을 표현하는 개와 고양이의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두 명의 유아가 짝이 되어 한
- 명은 개와 고양이의 행동을 흉내 내고 다른 유아는 어떤 감정인지 맞추어볼 수 있다.

가정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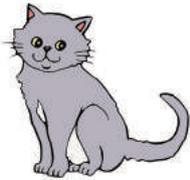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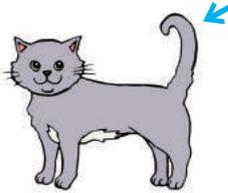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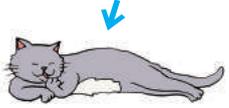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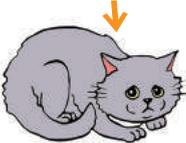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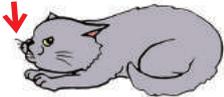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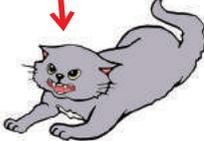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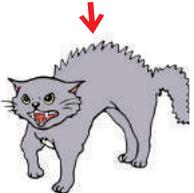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과 연계하여 반려견의 관찰 동영상을 촬영 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상 속의 동물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본다.



〈강아지의 몸짓 표정 알아보기〉

	<p>기분 좋은 강아지</p>			
<p>편안하게 허를 내민다 / 꼬리를 살짝 흔든다 / 엉덩이를 높이고 놀자는 듯 쾅! 짓는다</p>				
	<p>불안한 강아지</p>			
<p>눈길을 돌린다 / 입 주변을 핥는다 / 꼬리를 배쪽으로 숨긴다 / 하품을 한다</p>				
	<p>화난 강아지</p>			
<p>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노려본다 / 으르릉거린다 / 이빨을 보이며 공격하려고 한다</p>				

〈고양이의 몸짓 표정 알아보기〉

	<p>기분 좋은 고양이</p>			
<p>편안하게 앉거나 서 있다 / 꼬리를 치켜들고 걷는다 / 편안한 자세로 몸을 핥는다</p>				
	<p>불안한 고양이</p>			
<p>몸을 낮게 웅크린다 / 숨는다</p>				
	<p>화난 고양이</p>			
<p>이를 드러내고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 '카약! 하악!' 소리를 내며 위협한다 / 몸을 둥글게 말고 털을 곤두세운다</p>				



반려견 물림 사고의 20%는 10세 미만 어린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245건, 2013년 616건이던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5년 들어 1,48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매년 약 400만 건, 일본에서도 매년 4,000여 건의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56%가 어린이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반려견 물림 사고 피해자는 '10세 미만'이 19.3%로 가장 많았고, 특히 이들의 경우 상해 정도가 클 수 있는 '머리/얼굴' 부위를 물리는 경우가 29.5%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10세 이상 타 연령대는 '손/손목'이 35%로 가장 많음)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72%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낯선 개 뿐 아니라 친숙한 개의 경우에도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어린이들이 잘 모르고 개를 자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에서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지만,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꼭 맹견만 무는 것은 아닙니다. 맹견으로 구분되지 않는 반려견들도 정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행동을 100% 예측하고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아 불만을 느끼는 경우 뿐 아니라,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도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가급적 반려생활을 하는 가족 모두가 그 동물 종의 행동 특성과 해당 개체의 성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개에게 인간은 친구일까?, 로브 레이들로 지음, 박성실 옮김, 2014년, 책공장더불어 펴냄
- 또 '개 물림 사고'...공포의 대상 된 반려견들, 2017.06.29. 뉴스1, 천선후 기자 <http://news1.kr/articles/?3034555>
- RSPCA와 함께하는 동물보호교육 강사 워크숍, 2013년 동물권행동 카라

캐나다의
동물보호활동가
로브 레이들로는 다음과 같이
'개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수학 : 우리는 같은 마음

<개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

-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 낯설거나 친하지 않은 개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
- 친하지 않은 개가 가까이 다가오면 개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 뛰어서 도망가거나 소리치지 않는다.
-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다. 개와 나 사이를 자전거로 막는다.
- 개를 만지고 싶다면 먼저 개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한다.
- 개를 만지려면 개에게 나의 냄새를 먼저 맡을 수 있도록 한다.
- 개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런 행동을 위협이나 도전으로 여기는 개들이 있다.
- 묶인 개는 공격적일 수 있으니 줄에 묶인 개에게는 절대 다가가지 않는다.
- 밥을 먹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새끼를 돌보는 어미개를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개를 공격하거나 물도록 부추기거나 놀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동물복지 향상과 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육환경을 갖추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개를 키우는 견주들을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교육에서는 동물과 함께할 때의 행동규칙을 함께 정해 약속하고, 게시한다고 하는데, 아래는 어린이들이 개를 만날 때의 행동규칙의 한 예입니다.

<아이들이 개를 만날 때 행동규칙> 예시

1. 크기가 크든 작든 존중한다 Respect all dogs, big and small
2. 개의 욕구를 관찰하고 존중한다 Understand what dogs need
3. 개 주변에서는 조용하게, 천천히 움직인다 Keep quiet and move slowly near dogs
4. 모르는 개를 만지지 않는다 Don't touch dogs that you don't know
5. 자거나 아프거나 지친 개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Don't disturb a dog who is sleeping, sick or tired
6. 먹고 있거나 장난감을 갖고 노는 개에게 가지 않는다 Don't go near a dog who is eating or playing with his toys
7. 안전을 기하고 개와 놀고 난 후에는 손을 씻는다 Stay safe and wash hands after playing with dogs



자유선택 활동 2 : 언어

네 마음을 말할게



활동 목표

-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는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어려운 상황의 동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말로 표현한다.
(의사소통)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창의·인성 관련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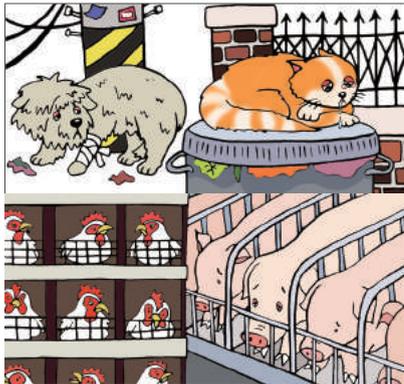
- 창의성 : 성향적 요소 개방성 / 동기적 요소 호기심 흥미
- 인 성 : 배려 동식물에 대한 배려

활동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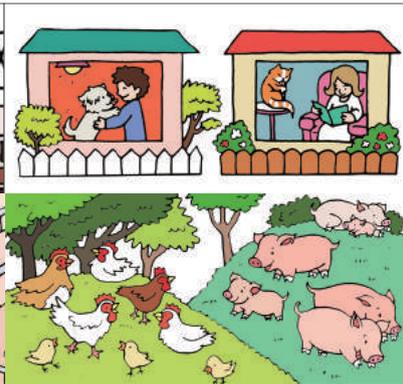
- 동물들의 상황그림 <잘 지내지 못 하는 모습>과 <잘 지내는 모습>
- <동물에게 필요한 것> 그림 카드
- 삼각대(한쪽 면에는 상황그림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림카드 9장이 뒤섞여 있음)를 활용할 수 있음.

<상황 그림>

<잘 지내지 못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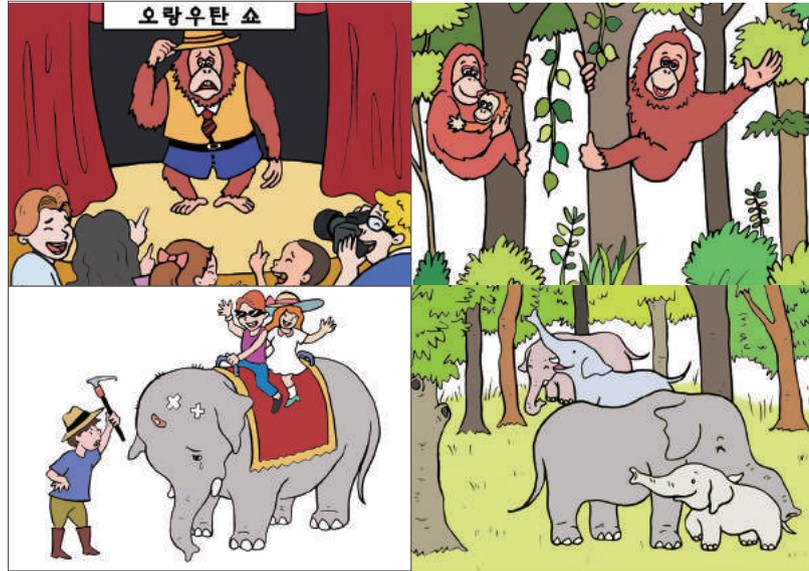
<잘 지내는 동물들>



<상황 그림>

<잘 지내지 못 하는 모습>

<잘 지내는 동물들>



<그림 카드>



활동 방법

1. 잘 지내지 못 하는 동물들의 상황그림 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 그림 속에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 동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 그림 속 동물들은 어떤 마음일까?
- 동물들은 왜 슬프고 힘이 들까?
- 그림 속 동물들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 이야기해 보자. 그림 속 동물이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니?
- 어떻게 해야 동물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2. 잘 지내는 동물들의 상황그림 자료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 잘 지내고 있는 동물들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니?
- 동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 우리가 동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동물들은 어떤 말을 할까?

3. 상황그림 자료를 소개하며 활동방법을 알아본다.

- 어떤 방법으로 놀이를 해 볼 수 있을까?
- 그림 속 동물이 되어 동물의 마음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4.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해 본다.

<활동방법>

- ① 두 명의 유아가 상황그림 속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유아와 그 동물이 원하는 내용의 그림카드를 찾을 유아를 정한다.
- ② 잘 지내지 못 하는 동물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아가 동물들의 입장이 되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 나랑 같이 살던 가족들이 바빠서 나를 키울 수 없다고 길에 나를 버렸어. 나는 슬프고 같이 살던 가족들이 보고 싶어.
- ③ 그림카드를 찾는 유아가 잘 지내는 못 하는 동물들의 상황을 듣고 알맞은 그림 카드를 찾아 다른 유아에게 건넨다. 건넬 때 동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말을 한다. 예) 강아지야, 많이 슬펐겠구나. 내가 끝까지 함께 잘 지낼게
-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카드를 건네고 그림카드를 받은 유아가 알맞은 상황그림 위에 그림카드를 붙인다.
- ⑤ 그림카드를 모두 붙인 후 완성된 그림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한다.

5. 놀이 하면서 동물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활동 유의점

- 상황그림에 대해 설명하기 보다는 동물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어려운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활동 평가

-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물들의 입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
- 동물들의 상황에서 동물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가?

확장 활동

- 상황그림 속 동물 외에 다른 동물들에게 적합한 사육환경이나 서식지를 알아본다.
- 상황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나누기나 토의 활동을 해본다.





공장식 축산과 살처분



2011년 구제역 사태로 전국의 소, 돼지 350여만 마리가 무참히 생매장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발생한 AI로 인해 3,8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매년 축산당국이 방역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높은 공장식 축산 비율 때문입니다. 밀집형 사육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의 주범이며, 가축의 대량 살처분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는 매몰지 침출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축산업은 99%가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장식 축산은 대량 생산과 관리 편의를 위해 동물을 평생토록 몸도 돌릴 수 없는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합니다. 공장식 축산은 유전적 단일성, 비위생, 동물학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 본연의 습성을 철저히 억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진 동물들에겐 항생제가 투여되고 있고,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는 고기를 통해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도 매우 해로운 항생제 내성이나 성조숙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저마다 환경에 적응하며 인지기능, 운동기능 등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닭, 돼지, 소 같은 농장동물들도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동물로서 사는 동안 만이라도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 한번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좁은 케이지에서 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엄마 닭, 몸을 돌리지도 못한 채 앉았다 일어섰다 밖

※ '공장식 축산(CAFO-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이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많은 가축을 밀집시켜 사육하는 축산방식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언어 : 네 마음을 말할게

에 할 수 없는 스톨 속 돼지는, 생태적 욕구를 일절 충족시킬 수 없는 극도로 삭막한 환경에서, 심각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공장식 축산은 자연 생태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열대림 같은 귀중한 생태계가 사료용 곡물을 재배하거나 대규모 목장을 만들기 위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대림 벌채 지역의 62.2%가 대규모 축산 목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축산에 드는 물의 양 또한 만만치 않아 토마토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물이 214 인 반면 같은 양의 소고기에는 15,415 , 돼지고기에는 5,988 , 닭고기에는 4,325 의 물이 사용됩니다.

공장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를 자제하는 식문화의 변화와 좁은 감금틀 사용과 같은 공장식 축산 방식을 금지해나가는 제도적 변화가 모두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2015년 5월 11일부터 공장식 축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감금틀(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돼지 스톨 등) 추방 입법청원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stopfactoryfarming.kr/>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금지 사례

스웨덴(1988년부터 단계적 폐지), 스위스(1992년부터 금지),
유럽연합 28개국(1999년 단계적 폐지기로 한 뒤 2012년부터 금지),
독일(2010년부터 금지), 오스트리아(2009년부터 금지),
미국(캘리포니아주 2015년까지 단계적 폐지, 미시건주 2019년까지 단계적 폐지, 연방 차원의 금지 논의중),
캐나다(매니토바주 2018년까지 단계적 폐지, 앨버타주 금지), 부탄(2012년부터 금지),
인도(국가 차원의 금지 논의중), 뉴질랜드(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신규는 2012년 12월부터 금지),
호주(수도특구 2016년까지 단계적 폐지)

● 돼지 스톨 금지 사례

스웨덴(금지), 영국(금지), 유럽연합 28개국(2013년부터 금지),
캐나다(신규는 2014년부터 금지), 미국(플로리다주 2008년까지 단계적 폐지,
캘리포니아주 2008년부터 단계적 폐지, 아리조나주 2013년부터 금지,
콜로라도주 2018년까지 단계적 폐지, 메인주 2011년부터 금지,
미시건주 2009년 단계적 폐지기로 함, 오하이오주 2010년 단계적 폐지기로 함,
오레곤주 2012년부터 금지, 로드아일랜드 주 2012년 단계적 폐지기로 함),
뉴질랜드(2015년까지 단계적 폐지), 호주(태즈메이니아주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수도특구 2014년부터 금지)



자유선택 활동 3 : 수학

행복한 돌고래



활동 목표

- 동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게임에서 다루는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긴다.
(자연탐구) 수학적 탐구하기 >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창의 · 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성향적 요소 개방성 / 동기적 요소 호기심 흥미
- 인 성 : 배려 동식물에 대한 배려

활동 자료

- 돌고래 제돌이 사진(동물원의 제돌이, 바다에서 점프하는 제돌이)
- 게임판 2개(바다그림 게임판, 동물원그림 게임판)
- 돌고래그림카드 20장씩 2세트
- 돌림판(돌고래쇼를 하는 돌고래, 어선에 포획되는 돌고래, 돌고래쇼장에 갇힌 돌고래, 자유롭게 점프하는 돌고래, 가족들과 함께 있는 돌고래, 마음껏 헤엄치는 돌고래, 쇼장에서 풀려나는 돌고래)



〈바다의 제돌이 / 출처: korea.net〉

〈동물원의 제돌이 / 출처: 서울신문〉

활동 방법

1. 사진을 보며 제돌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 (동물원의 제돌이 사진을 보며) 이런 돌고래를 본 적이 있니?
- 이 돌고래는 이름이 있단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 제돌이는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오게 되었을까?
- 사람들에게 잡혀서 동물원에 온 제돌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 (점프하는 제돌이 사진을 보며) 제돌이가 어떻게 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갔을까?
-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
- 바다로 다시 돌아간 제돌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2. 동물들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본다.

- 다른 동물들도 제돌이처럼 행복해지고 싶어할까?
- 바다로 다시 돌아간 제돌이처럼 동물들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만약 동물들이 배가 고프다면(몸이 아프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내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

3. 게임의 돌림판의 그림들을 소개하며, 게임 방법을 알아본다.

〈활동방법〉

- ① 두 명의 유아가 돌고래그림카드를 동물원그림 게임판에 붙인다.
- ② 순서를 정한 후 돌림판을 돌린다.
- ③ 돌림판을 돌려 나온 그림이 돌고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이면 그림에 있는 숫자만큼 돌고래그림카드를 바다그림 게임판에 붙인다.
- ④ 돌고래그림카드가 모두 없어지면 게임이 끝난다.

4.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해 본다.

5. 게임 후, 돌고래의 마음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돌림판〉



활동 유의점

- 동물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동물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한다.
- 동물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활동 평가

- 사람들이 잠깐의 즐거움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을 힘들게 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가?
- 동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에 관심을 가지는가?

확장 활동

-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돌이가 방사되기까지의 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고, 수고한 동물보호 활동가에게 감사편지를 쓴다.

가정 연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괴롭히는 사업에 대해 소비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유아들이 만든 그림책과 함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돌이 방사와 그 이후

서울대공원의 금등, 대포, 제돌, 태지, 그리고 제주 퍼시픽랜드의 춘삼, 삼팔, 태산, 복순은 모두 돌고래쇼에 동원되던 돌고래들이었습니다. 이 중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태지를 제외한 금등, 대포, 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은 모두 우리 제주도 연안에서 살아가다가 불법으로 포획되어 크기에 따라 800~1500만원에 팔려 자유를 빼앗긴 남방큰돌고래들이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 해역에서만 발견되는 국제보호종입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안 1.5km 이내에 살며 제주도 주변을 돌며 생활하고, 연안에서 고등어, 전갱이, 돌돔, 오징어 등 살아있는 어류를 잡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1~4마리의 소규모로 다니기도 하고, 70~80마리의 큰 집단을 형성하는 등 해안을 돌며 '이합집산'하며 자유로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망에 돌고래가 걸리면 원래 방사해야 하지만, 제주 퍼시픽랜드는 이를 불법 매입해 왔고, 그렇게 1997년 대포(당시 3~4세, 수컷)가, 1998년 금등(당시 6~7세, 수컷)이, 2009년 제돌(당시 10세, 수컷)이와 복순(당시 11세, 암컷)이, 2009년 태산(당시 14세, 수컷)이와 춘삼(당시 9세, 암컷)이, 그리고 2010년 삼팔(당시 7~9세, 암컷)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 한 활동가의 노력으로 제돌이의 불법 포획 사실이 알려졌고, 핫핑크돌핀스,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이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2012년 3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포획되어 서울대공원에 와 있던 돌고래들의 자연방류를 결정

하였고, 다음해에는 돌고래를 불법으로 유통하여 쇼에 동원해 온 퍼시픽랜드에 돌고래 몰수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 여덟 마리 돌고래의 자연 방류와 이를 위한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여름, 삼팔, 제돌, 춘삼이가 제주 바다로 돌아갔고, 2015년 여름에는 태산, 복순이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동 중에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던 복순이는 임신 중이었고 가두리에 도착해서 새끼를 낳았으나, 안타깝게도 폐사했습니다. 태산, 복순이가 가두리에 있을 때 제돌이를 포함한 3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가두리 주변으로 찾아와 서로 수면 위로 뛰어오르며 반가워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7월 18일에는 가장 오랜 기간 사람에게 잡혀 있었던 금등, 대포가 제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운 건 태지의 상황입니다. 태지는 제주 바닷가에 살던 남방큰돌고래가 아니라 일본 다이지 근처에 살다가 잡힌 큰돌고래이기에 원래 서식지가 아닌 제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래 서식지인 일본 다이지가 매년 바닷물을 붉게 물들이는 잔인한 돌고래 사냥이 벌어지는 곳이라 그곳에 방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지는 아직도 수족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5일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태지를 비롯하여 자연 방류가 어려운 해양 동물들을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또다른 도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수학 : 행복한 돌고래

전에 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가두리라 하더라도 바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사람들은 태지를 보며 마음아파합니다.

제돌이 방류 전, 한국의 돌고래는 혼획(다른 어류 잡다가 같이 잡게 되는 경우)으로 매년 평균 10여 마리가 사망해 왔고, 2014년까지의 태세라면 2030년에는 50여마리만 남고, 2040년에는 제주도 남방큰돌고래가 멸종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돌이 방류 이후, 제주에서 돌고래 포획이 사라졌고, 어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그물에 혼획된 돌고래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야생 무리는 110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며, 계속 회복세를 보인다면 앞으로 200여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되돌아간 돌고래들도 기쁜 소식을 전

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삼팔이가, 7월에는 춘삼이가 새끼를 낳아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관찰된 것입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수명은 야생에서 40년 이상이지만, 수족관 돌고래들은 평균 8여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998년에 포획된 금등이가 2017년 바다로 돌아가기까지, 그 20년의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에게도 고작 몇 천원을 주고 몇 분 간 즐기는 흥미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속박입니다. 이제라도 금등, 대포, 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이가 자연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태지를 비롯하여 전국의 수족관에 갇혀 있는 39마리(2017.07 기준)의 돌고래들도 어서 수족관을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의 금등, 대포
(출처: 뉴시스)

풀려나는 금등, 대포
(출처: 경북매일)



2017.7.18.
바다로 돌아간 금등, 대포



자유선택 활동 4 : 음률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활동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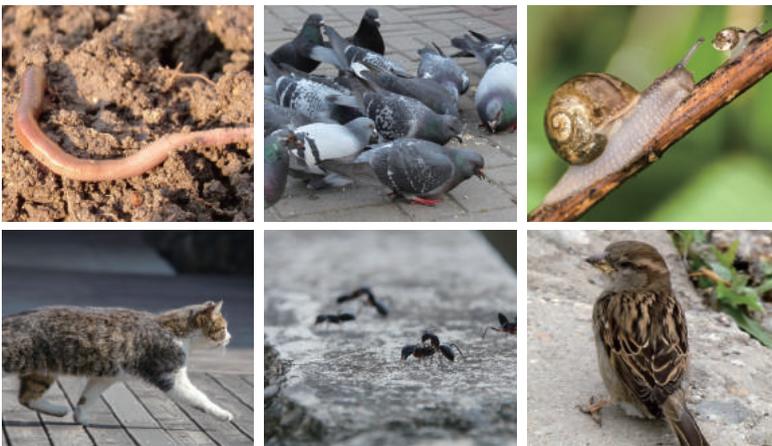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함을 안다.
(자연탐구 >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친구들과 함께 만든 노래를 악기로 즐겁게 연주해본다.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하기)

창의 · 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인지적 요소 사고의 확장 / 동기적 요소 호기심 흥미
- 인 성 : 배려 동식물에 대한 배려

활동 자료

-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동물(지렁이, 비둘기, 달팽이, 길고양이, 개미, 새 등)의 사진
- 리듬악기(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우드블럭 등)



활동 방법

1.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 동물들의 사진을 보며 동물들과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여기 보이는 사진 속의 동물들을 직접 본 적이 있니?
- 지렁이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니?
- 비둘기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니?
- 개미를 쫓아서 따라가 보았던 적이 있니?
- 이런 동물들은 주인이나 보호자가 누굴까? 보호자가 없는 동물들을 본 적이 있니?

2. 모든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사람들이 지렁이를 모두 죽이면 어떻게 될까?
- 비둘기를 따라서 막 뛰어가면 비둘기는 어떨까?
-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길고양이 기분은 어떨까?
- 보호자가 없는 동물들은 함부로 대해서도 될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3. 보호자가 없는 동물들의 마음을 알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도와 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나눈다.

- 우리가 동물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동물은 깜짝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달팽이는 갑자기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집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구나
- 개미를 꾸욱 누르면 죽고, 개미 나라에서는 없어진 개미를 찾으러 다니겠구나
- 동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 동물들의 생명을 지켜주도록 할 수 있는 노랫말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 어떤 노래에 노랫말을 넣을까?
- 정한 노래에 맞게 노랫말을 만들어 보자~
- 함께 정한 노랫말을 넣어 노래를 불러본다.

똑같아요

조금 빠르게 음식종류 외 피하기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 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 가

첫 가 락 두 짝이 똑같이 요
울 가 락 네 짝이 똑같이 요

예) 노래 '똑같아요' 멜로디에 노랫말을 넣은 경우

달팽이 생명은 소중한요 /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해요

지렁이 생명은 소중한요 / 밟지 말고 보기만 해요

비둘기 안전은 소중한요 / 방해하지 말고 보기만 해요

길고양이 안전은 소중한요 / 방해하지 말고 보기만 해요

5. 손뼉과 무릎치기를 하며 불러본다.

- 내 손뼉 한 번 치고 내 무릎 두 번 치며 노래를 불러보자.

6. 친구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불러보기로 하고 연주방법을 알아본다.

- 쿵짝짝 쿵짝짝 : 탬버린 캐스터네츠 캐스터네츠

- 쿵짝짝 쿵짝짝 : 트라이앵글 우드블럭 우드블럭

7. 음률영역에서 친구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본다.

활동 유의점

- 노랫말을 넣는 과정은 사전활동으로 할 수 있다.
- 노랫말을 만든 후 바로 악기 연주를 하지 않고 손뼉과 무릎치기를 하며 충분히 불러 본 후 악기연주를 해 볼 수 있다.

활동 평가

- 노랫말로 표현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 친구들과 함께 만든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가?
- 노래의 리듬과 박자에 어울리게 악기를 연주하는가?

확장 활동

- 다른 노래에 새로운 노랫말로 바뀌지어 볼 수 있다.
- 다른 종류의 악기로 연주해 본다.

가정 연계

-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안내한다.

똑같아요

조금 빠르게

윤석중 요
외 국 곡



똑같아요

달팽이 생명은 소중한요 /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해요
 지렁이 생명은 소중한요 / 밟지 말고 보기만 해요
 비둘기 안전은 소중한요 / 방해하지 말고 보기만 해요
 길고양이 안전은 소중한요 / 방해하지 말고 보기만 해요



인간과 동물의 같음과 다름

미국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등의 저술을 통해 사회생물학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최근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흔히 생각하듯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사회 속에서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측면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 생각이나 감정 없이 본능에만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인간과 다름없이 나름의 삶을 꾸려가며, 심지어 '인간', '인간계'라는 존재와 영역을 인지한다는 것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단순히 열등한 존재로 다루는 인간의 방식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 나아가 동물 역시 인간처럼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더욱 주목받게 되면서 인간의 윤리적 고려의 지평을 다른 종에게까지 넓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13년 5월 인도의 환경산림부는 돌고래 수족관 설치를 금지하면서 흥미로운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중앙동물원관리국이 작성한 공문에는 "돌고래를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s)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 돌고래를 공연 목적으로 가두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비인간인격체는 '인간(human)'과 '인격체(person)'를 구별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다르지만(비인간), 인간만이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여겨졌던 특성(인격체: 사고, 감정, 성격, 자의식 등)을 공유하는 다른 종의 동물들을 인정하자는 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유인원, 코끼리, 고래, 돌고래 등 사람처럼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이성과 감정이 있으며 때로는 도덕적 행동도 하는 비인간동물을 법률상 권리주체로 보고 이들의 전시 공연 금지, 동물실험 금지 등을 추진하자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음률 :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최재천 교수가 말하는 “그들은 알고 있다(They know)”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새끼 여우가 도움을 받자마자 숲으로 도망치는 영상

유튜브에는 다른 종의 동물들이 인간의 존재를 알고 말을 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의 영상에서는 머리가 유리병에 낀 새끼여우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사람을 보자 슬금슬금 도움을 청하듯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리병에서 머리를 꺼내주자, 여우는 한번 돌아보고는 숲속으로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이 여우는 인간을 피하는 야생동물이지만, 자신이 ‘인간의 물건’을 탐색하다가 곤경에 빠졌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건 ‘인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인간의 길에서 인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국립생태원장이기도 한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에 따르면 이밖에도 그물에 걸린 돌고래가 дай버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물들이 인간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동물을 ‘바라보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바라봐지는’ 인간에 대한 고찰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동물들의 눈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자연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인류가 자연에서 떨어져 나와 도시를 형성하고 산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는 너무도 큰 변화를 맞이했지만요. 앞으로 사람들은 다른 동식물 및 이 지구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요?

참고자료

- 위키백과 ‘이기적 유전자’ https://ko.wikipedia.org/wiki/이기적_유전자
- 논쟁 없는 시대의 논쟁, 영국사상연구소 지음, 박민아 정동욱 외 1명 옮김, 이음 펴냄, 2009.09.30
- 비인간인격체 http://www.huffingtonpost.kr/2015/01/17/story_n_6491536.html
- 유튜브 Fox cub comes to people for help <https://www.youtube.com/watch?v=Tj6quKEn3dw>



자유선택 활동 5 : 미술

먹이통 디자인하기



활동 목표

- 동물 고유의 습성에 맞는 먹이통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연탐구)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먹이통을 만든다.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

창의 · 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성향적 요소 - 독립성 / 동기적 요소 몰입
- 인 성 : 배려 동식물에 대한 배려

활동 자료

- 집에서 심심하게 있는 햄스터나 고양이 사진
- 햄스터나 고양이 사료
- 휴지심, 종이상자, 꾸미기 재료, 가위, 풀, 유아용 본드



출처 : <http://qrmrij.blog.me/220771315657>



활동 방법

1. 사진을 보며 집에서 혼자 있는 햄스터나 고양이에 대해 생각해본다.
 - 햄스터나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 햄스터나 고양이가 잘 하는 것은 무엇일까?
 - 만약 햄스터나 고양이가 매일 집에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햄스터나 고양이가 좋아하거나 잘 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2. 햄스터와 고양이가 잘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 햄스터와 고양이가 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어떤 방법으로 매일매일 해보도록 할 수 있을까?
3. 친구들과 협력하여 햄스터와 고양이가 먹이를 먹을 때 운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먹이통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 햄스터와 고양이가 먹이를 먹을 때 놀이처럼 재미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만약 먹이를 그릇에 담아서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준다면 어떻게 줄 수 있을까?
 - 햄스터와 고양이가 놀이하면서 재미있게 먹을 수 있는 먹이통을 만들어 보자.
4. 먹이통을 만들 재료를 살펴보며, 어떤 형태의 먹이통을 만들면 좋을지 이야기해 본다.
 - 여기에 있는 재료로 먹이통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 어떻게 만들면 햄스터나 고양이가 재미있게 놀이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
 - 우리가 만든 먹이통을 햄스터나 고양이가 사용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 만들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5. 또래들과 함께 먹이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며, 먹이통을 만든다.

〈만드는 방법〉

 - ① 친구들과 함께 모듬을 만든다.
 - ② 휴지심과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어떤 모양의 먹이통을 만들지 생각해본다.
 - ③ 휴지심과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생각한 형태대로 먹이통을 만든다.
 - ④ 먹이통 안에 적당량의 사료를 넣는다.
 - ⑤ 꾸미기 재료를 활용하여 먹이통의 겉면을 꾸민다.
 - ⑥ 친구들과 함께 만든 먹이통을 살펴본다.
6. 만들어진 먹이통을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지 이야기한다.

먹이통을 사용하게 될 햄스터나 고양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한다.

활동 유의점

- 햄스터나 고양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며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평가

- 햄스터나 고양이의 놀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표현하는가?
- 먹이통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확장 활동

- 햄스터나 고양이, 강아지의 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놀잇감 만들기를 해본다.

확장 활동

- 햄스터나 고양이를 기르는 유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먹이통이나 놀잇감을 직접 집에 가지고 가서 동물들의 반응을 관찰해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해본다.





반려동물도 심심해요

●반려동물의 정서적 필요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기

널리 알려진 '동물의 5대 자유'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동물은 서식지에서 식욕, 호기심, 사냥 본능 등 자신의 습성에 맞게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한편 반려동물은 주로 실내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에서 받는 자극이 반려인이 제공하는 환경으로 제한됩니다. 자연에 비해 단조로운 수밖에 없는 집안은 동물에게 있어 심심하고, 무료하고, 홀로 불안한 환경이 될 수 있기에 반려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놀아주면서 돌보느냐에 따라 동물의 행복감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도 '동물행동풍부화(enrichment)'가 필요합니다!

●개의 경우

연구에 따르면 개는 평생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와 함께 놀아주는 것은 반려인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라고 주장하는 수의사가 있을 만큼, 개를 키울 때는 매일 산책하고, 함께 의사소통(앉아, 기다려 등)을 익히면서 사람이 상호작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는 잡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육식동물로서 본능적으로 쫓고, 붙잡고, 깨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개와 활동적으로 놀아주는 것은 이런 갈증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고, 자칫 집안 물건을 파괴할 수 있는 욕구 분출을 예방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반려 원칙입니다.

반려견에게 '앉아' 등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싶다면, 우선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행동을 할 때 좋아하는 것을 보상으로 주면서 즐거운 것으로 느끼도록 한 후 그 행동 직전에 "앉아"라는 소리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들려주다보면 배우게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

고양이는 사람과의 놀이, 애정표현, 먹이 먹는 방식 등을 중심으로 많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고양이에게도 놀이는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놀이는 긍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긴장을 풀게 합니다. 다만 놀이를 위해 사람이 끈이나 낚시대 장난감을 흔든다든지 하면서 놀자고 제안할 수 있지만 고양이가 동의해야 합니다. 혹시 생후 2개월 전 엄마 고양이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과민-과잉활동성 증후군이 있는 고양이이거나, 놀아주는 이가 과도한 자극을 주면 위협을 느껴 노는 중에 예기치 않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중단하고 놀잇감을 살며시 땅에 내려놓습니다.

고양이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간식을 주기적으로 주거나, '고양이 마약'으로 불리는 캣닙 가루 냄새를 잠시 맡도록 해주는 것 역시 고양이에게 긍정적 자극과 재미를 줌으로써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 그 밖의 경우, 예를 들어 햄스터의 경우 인터넷에 'hamster enrichment' 라고 검색하면 동물의 놀이와 행동풍부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개를 자식처럼 기르자, 김광식 지음, 펫프렌즈 펄냄, 2015.07.01
-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강형욱 지음, 동아일보사 펄냄, 2014.05.30
- 고양이 집사 자격 시험, 발레리 드라마르 지음, 김이정 옮김, 부키 펄냄, 2012.05.11



자유선택 활동 6 : 미술

혼자 있고 싶은 동물의 가림막 만들기



활동 목표

- 동물원 동물들에게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안다.
(자연탐구 : 과학적 탐구하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동물원 동물들의 관점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본다.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

창의 · 인성 관련요소

- 창의성 : 성향적 요소 개방성 / 동기적 요소 호기심 흥미
- 인 성 : 배려 동식물에 대한 배려

활동 자료

- 동물원 우리에 갇힌 동물 사진
- 넓고 낮은 상자, 다양한 동물 인형 모형, 다양한 쌓기 블록 자료, 검정 시트지, 밝은 색 시트지, 네임펜, 가위

활동 방법

1. 사진을 보며 동물원 유리사육장에 갇힌 동물들의 마음을 생각해본다.
 -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니?
 - 매일매일 몇 백명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며 나를 지켜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모습을 항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 동물들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까? 어떨 때 혼자 있고 싶을까?
2. 넓고 낮은 상자에 가림막이 있는 동물원을 만들어보기로 한다.
 - 동물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

- 작은 집이 없을 때 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 동물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 숨을 수 있도록 가림막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3. 동물 모형과 쌓기 자료들을 이용하여 가림막이 있는 동물원을 만들어본다.

- 어떤 동물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싶니? 사막 여우 우리를 만들고 싶구나!
- 사막여우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가림막을 만들어 볼까?

〈만드는 방법〉

- ① 어떤 모양의 가림막을 만들지 생각해본다.
- ② 검정 시트지에 만들고 싶은 모양을 그린다.
- ③ 가위로 시트지를 오린다.
- ④ 밝은 색 시트지에 동물원 관람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고 네임펜으로 꾸민다.
- ⑤ ④를 검정 시트지 위에 붙인다.
- ⑥ 나와 친구들이 만든 가림막을 살펴본다.

4. 가림막이 있는 동물원 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나눈다.

- 동물원을 꾸미면서 가림막을 만들었는데 어떤 놀이를 하면 좋겠니?
- 동물의 마음을 표현하는 역할놀이를 해보면 좋겠구나!
- 동물원에 구경온 사람은 혼자 있고 싶은 동물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방해하지 않아야겠네!

활동 유의점

- 사전에 가림막이 필요한 동물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크게 만들기 어려울 경우 여러 명의 것을 함께 붙일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활동 평가

- 유리사육장에 갇힌 동물들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 가림막을 만들며 동물원 동물들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가?

확장 활동

- 동물원과 협의하여 동물들과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편지를 쓴 후 가림막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고 가림막을 붙인 동물원 사육장 사진을 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동물복지 선진 동물원의 변화 1

동물행동풍부화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야생동물에게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자연에서 보이는 행동을 유도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을 동물행동풍부화(Behavioral enrichment)라고 합니다.



왼쪽은 시카고 브룩필드 동물원의 고릴라 전시관의 모습인데요, 고릴라가 사는 공간에 나뭇가지, 끈 등을 설치해 야생에서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수풀 뒤에 가려지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 서울대공원의 호랑이사 사진인데요, 흙바닥에 물웅덩이를 만들어주자, 물놀이를 좋아하는 호랑이가 매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먹이도 좀더 재미있게 먹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공이나 종이박스를 갖고 놀도록 넣어준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은 자연의 다양한 자극 속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포식자를 피해 먹이를 찾고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동물원은 좁고 인공적인 공간에서 정해진 식단이 제공되는 훨씬 단순한 곳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을 앞뒤로 춤추듯 움직이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정형행동(stereotyped behavior)'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동물원들은 동물원 동물들이 더 이상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다면, 최대한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동물행동풍부화'를 통해 동물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 참고

서울동물원 홈페이지 <http://grandpark.seoul.go.kr/>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 홈페이지 <http://www.torontozoo.com/>

선생님을 위한 추가 정보

미술 : 혼자 있고 싶은 동물의 가림막 만들기

동물복지 선진 동물원의 변화 2

동물 포기하고 보내주기

아무리 서식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준다고 해도, 동물원 동물들이 수많은 방문객들의 시선과 갑작스런 행동에 노출되는 스트레스를 피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전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문제제기된 동물들을 다시 자연에, 혹은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 풀어주는 일도 생기고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좁은 동물원에 갇혀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토론토 동물원은 자신들이 소유하던 세 마리의 코끼리 Iringa, Toka, Thika를 PAWS(Performing Animals Welfare Society)라는 단체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넓은 생츠퍼리(Sanctuary)로 보내줬어요.

우리나라에도 동물원 동물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낸 자랑스러운 사례가 있지요!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들을 제주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유로이 바다를 누비며 야생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요!

📎 생츠퍼리(Sanctuary)란?

굳이 번역하자면 ‘동물보호구역’ 같은 곳이에요. 동물원, 농장, 실험실 등의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구조된 동물들이 최대한 원래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동물을 위한 보금자리지요. 그 한 예가 PAWS의 생츠퍼리인데요, 유튜브에 “paws sanctuary”로 검색하면 동물원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코끼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생명개념 및 공감능력 발달을 위한 유아 동물보호교육

본 프로그램은 유아가 동물을 고유한 삶의 욕구와 지각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동물을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물보호를 실천해요'라는 주제를 전개하는 주간교육계획안과 그에 따른 대·소집단 및 자유선택 활동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과 향후 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생명존중, 인성교육의 실재로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동물 보호 교육이 유아들의 친사회적 기술과 공감 능력의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되었다. 동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재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시민교육의 실재로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다. 동물보호의 정신을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캠페인을 하는 활동으로 심화하여 더불어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셋째, 교사교육의 실재로서 활용 가능하다. 많은 교사들이 동물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에 대한 이슈를 간과하고 동물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서의 활동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유아들 뿐만아니라 교사에게도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를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자는 함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동물보호 실천가들에게 유아기에 적합한 동물보호교육의 실례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동물보호 실천가들은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이슈들이 영유아기의 발달적 요구에 맞게 어떻게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지 어려운 사안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동물보호 실천가들에게 영유아기의 생명개념 및 공감능력 발달에 적합한 실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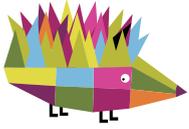
-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4권 <동식물과 자연>
- 엘리자베스 드 폰트네(2008), '동물도 생각과 감정이 있을까?', 웅진주니어

논문

- 권혜준(2015), U-City사회에서 반려동물교육이 아동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세대, 석사논문
- 김도형(2016), 인성교육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협동미술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선아(2006), 만 4,5세 유아의 동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김태경(2014), 반려동물매개활동 프로그램이 만 5세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석사논문,
- 노보람(2014), 3, 4, 5세 유아의 생명현상 인지 및 추론, 서울대, 석사논문
- 문가영(2010), 만 3,4,5세 유아의 동물에 대한 질문 탐색, 중앙대, 석사논문
- 백성희(2008), 동물 이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동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환경교육 학회지』, 제21권 3호, pp59-65
- 서경옥(2017), 온생명론을 적용한 동물존중교육의 탐색적 연구 -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송하영(2015), 실천적 동물윤리에 근거한 중학교 도덕 교과와 동물윤리교육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엄인영(2016), 동물복지교육을 위한 동물원 프로그램 및 사육전문가 면담 조사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이보영(2012), 유아의 동물개념발달 연구, 실천유아교육
- 이현주, 조미환(2013), 유치원 교사의 동물 기르기 활동 실태와 인식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 이화수(2001), 애완 동물기르기가 유아의 감정이입 및 동물애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석사논문,
- 정하나(2015), 극화놀이를 통한 유아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 박사논문,
- 조중현(2013),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 한양대, 박사논문
- 조지연(2015), 서울대공원 동물 친화교육이 참가자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 조사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허정민(200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동물 기르기 실태와 교사 인식, 계명대, 석사논문
- 홍옥선(2015), 작은 생명체 돌봄 체험이 유아의 친생물경향성과 도덕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 박사논문
- 황선미(2010), 동물 보호 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대, 석사논문

기타

-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https://www.ekara.org/>)
-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 Compassion in World Farming(<http://www.ciwf.org.uk>), Strategic Plan 2013-2017
-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http://www.kmta.or.kr>), 통계자료 2016년 도축현황 및 소비현황
-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2005), Livestock's Long Shadow
- UNESCO, Teaching and Learning for a Sustainable Future(<http://www.unesco.org/education/tlsf/>)
- Louise M. Slaughter(2011),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용, Confirmed: 80 Percent of all antibacterial drugs used on animals, endangering human health, (<https://louise.house.gov/>)
- John Clifford(2010), Testimony of Dr. John Clifford, Deputy Administrator for Veterinary Services,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리차드 마틴 : http://www.britsattheirbest.com/living/l_rspca.htm
- RSPCA - Understanding Animal Welfare Education
- Paul Littlefiar(RSPCA), David Coggan(Humanebeing), 2013년 KARA 동물보호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교육자료



MEMO

동물보호교육에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록1_교수자료 미리보기 _107

- 01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동물의 표정 카드> 1 _ 108
- 02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동물의 표정 카드> 2 _ 108
- 03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동물의 표정 카드> 3 _ 109
- 04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동물의 표정 카드> 4 _ 109
- 05 반려동물의 기분을 알아보아요 <동물의 표정 카드> 5 _ 110
- 06 동물에게 필요한 것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아요> 표 _ 110
- 07 우리는 같은 마음 <게임판> 1 _ 111
- 08 우리는 같은 마음 <게임판> 2 _ 111
- 09 우리는 같은 마음 <강아지의 몸짓 표정 알아보기> _ 112
- 10 우리는 같은 마음 <고양이의 몸짓 표정 알아보기> _ 112
- 11 우리는 같은 마음 <얼굴표정 카드> _ 113
- 12 네 마음을 말할게 <상황그림>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고 있나요? 1 _ 113
- 13 네 마음을 말할게 <상황그림>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고 있나요? 2 _ 114
- 14 네 마음을 말할게 <상황그림> 오랑우탄이 잘 지내고 있나요? 1 _ 114
- 15 네 마음을 말할게 <상황그림> 오랑우탄이 잘 지내고 있나요? 2 _ 115
- 16 네 마음을 말할게 <상황그림> 코끼리가 잘 지내고 있나요? 1 _ 115
- 17 네 마음을 말할게 <상황그림> 코끼리가 잘 지내고 있나요? 2 _ 116
- 18 네 마음을 말할게 <상황그림> 닭과 돼지가 잘 지내고 있나요? 1 _ 116
- 19 네 마음을 말할게 <상황그림> 닭과 돼지가 잘 지내고 있나요? 2 _ 117
- 20 네 마음을 말할게 <동물에게 필요한 것> 그림 카드 1 _ 117
- 21 네 마음을 말할게 <동물에게 필요한 것> 그림 카드 2 _ 118
- 22 행복한 돌고래 <동물원의 제돌이> _ 118
- 23 행복한 돌고래 <바다의 제돌이> _ 119
- 24 행복한 돌고래 <돌림판> _ 119
- 25 행복한 돌고래 <돌고래그림카드> _ 120
- 26 행복한 돌고래 <게임판> 동물원그림 게임판 _ 120
- 27 행복한 돌고래 <게임판> 바다그림 게임판 _ 121
- 28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지렁이> _ 121
- 29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비둘기> _ 122
- 30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달팽이> _ 122
- 31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길 고양이> _ 123
- 32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개미> _ 123
- 33 생명과 안전은 소중해요 <참새> _ 124
- 34 먹이통 디자인하기 <심심해 보이는 햄스터> _ 124
- 35 혼자 있고 싶은 동물의 가림막 만들기 <숨을 곳 없이 지내는 곰> _ 125



108p~125p에 제시된 <교수자료 미리보기>는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 또는 카라 교육 웹사이트(www.karaedu.org)에서 원본 PDF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원본 PDF파일은 B4사이즈로 인쇄하실 때 가장 적합합니다.

부록2_한국의 동물보호법 _126

부록3_생명존중이 살아 숨 쉬는 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_129

친구가 싫어해요



먹을 때 건드리면
싫어요

동물이 싫어해요



동물도 먹을 때 건드리면
싫어해요

이렇게 해요



동물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줘요

친구가 싫어해요



친구의 장난감을 빼으면
안돼요

동물이 싫어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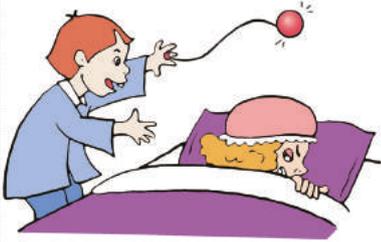
동물의 장난감을 빼으면
안돼요

이렇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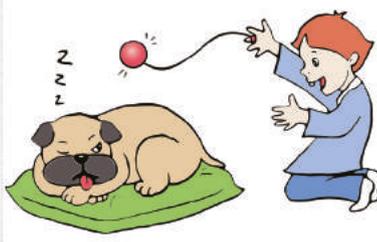
동물이 장난감으로
놀이할 수 있게 해요

친구가 싫어해요



잘 때 괴롭히면
싫어요

동물이 싫어해요



동물도 잘 때 괴롭히면
싫어해요

이렇게 해요



동물이 잘 때는
깨우지 않아요

©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친구가 싫어해요



내 맘대로 만지면
안돼요

동물이 싫어해요



동물도 내 맘대로 만지면
안돼요

이렇게 해요



조심해서 천천히
동물의 인사법으로
인사해요

©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친구가 싫어해요



큰 소리를 내면
놀라요

동물이 싫어해요



큰 소리를 내면 동물도
놀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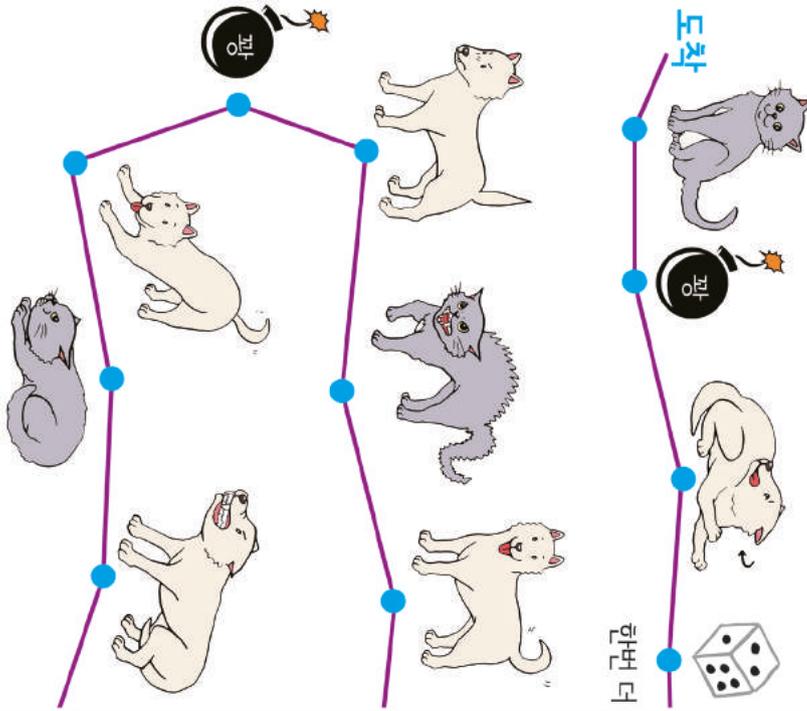
이렇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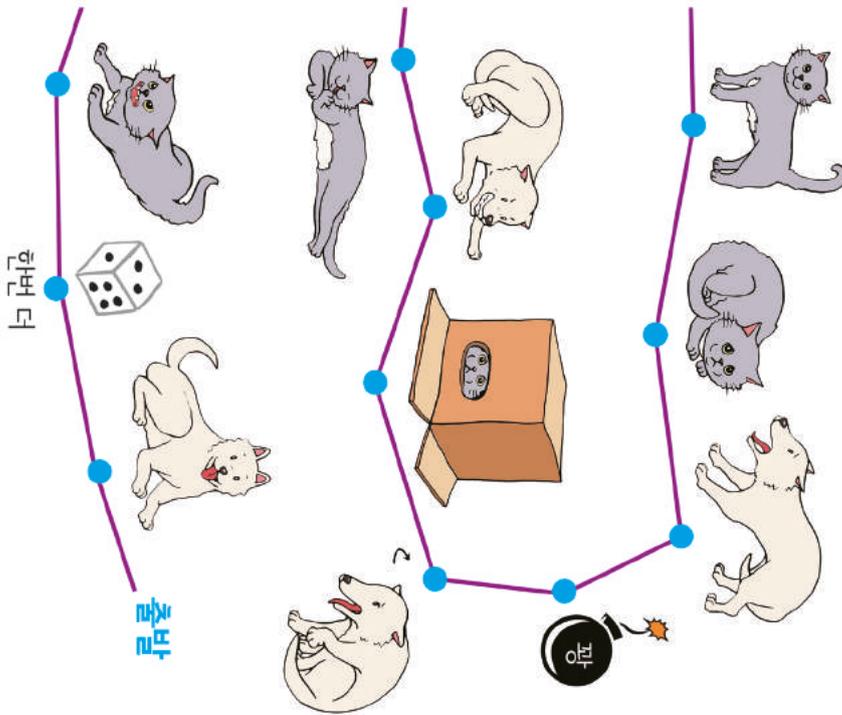
동물 곁에서
조용히 얘기해요

110

<우리는 같은 마음> 게임판



© 동물선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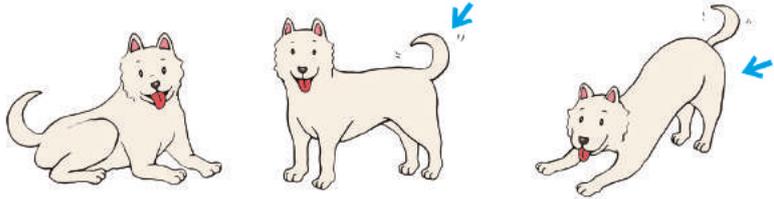


© 동물선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강아지의 몸짓 표정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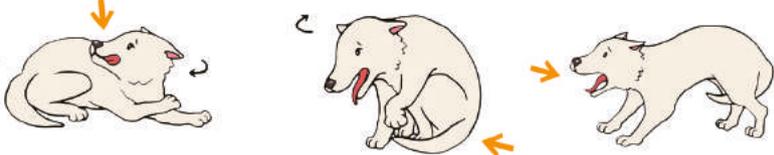
기분 좋은 강아지



편안하게 허를 내민다 / 꼬리를 살짝 흔든다 / 엉덩이를 높이고 놀지는 듯 경! 짖는다



불안한 강아지



눈길을 돌린다 / 입 주변을 핥는다 / 꼬리를 배쪽으로 숨긴다 / 하품을 한다



화난 강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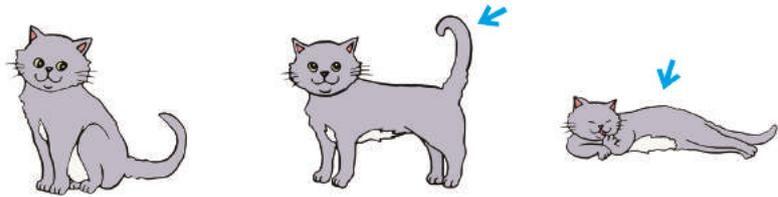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고양이의 몸짓 표정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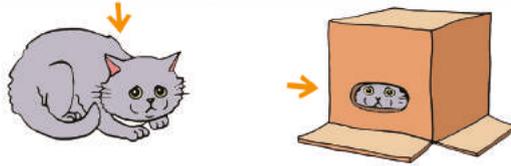
기분 좋은 고양이



편안하게 앉거나 서 있다 / 꼬리를 치켜들고 걷는다 / 편안한 자세로 몸을 핥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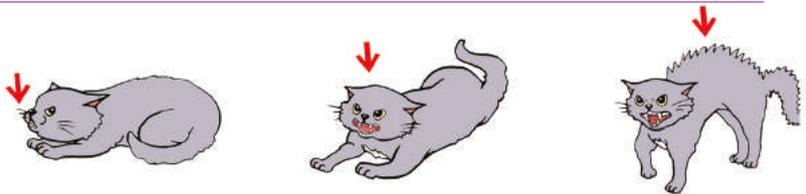
불안한 고양이



몸을 낮게 웅크린다 / 숨는다



화난 고양이



이를 드러내고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 '카악! 하악!' 소리를 내며 위협한다 / 몸을 둥글게 말고 털을 곤두세운다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기쁜
표정



슬픈
표정



화난
표정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고 있나요?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고 있나요?



114

오랑우탄이 잘 지내고 있나요?



오랑우탄이 잘 지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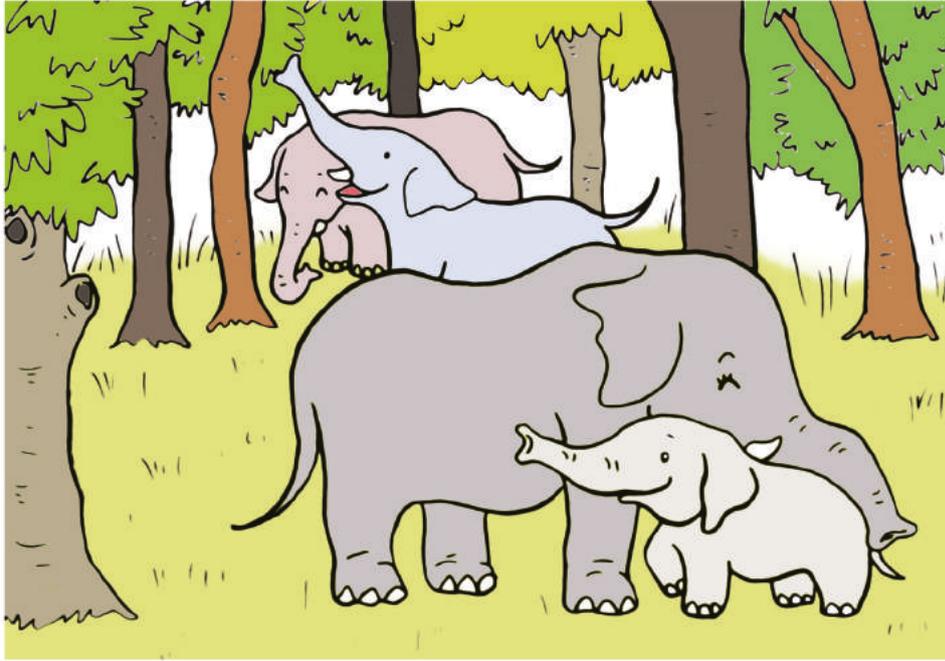
©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코끼리가 잘 지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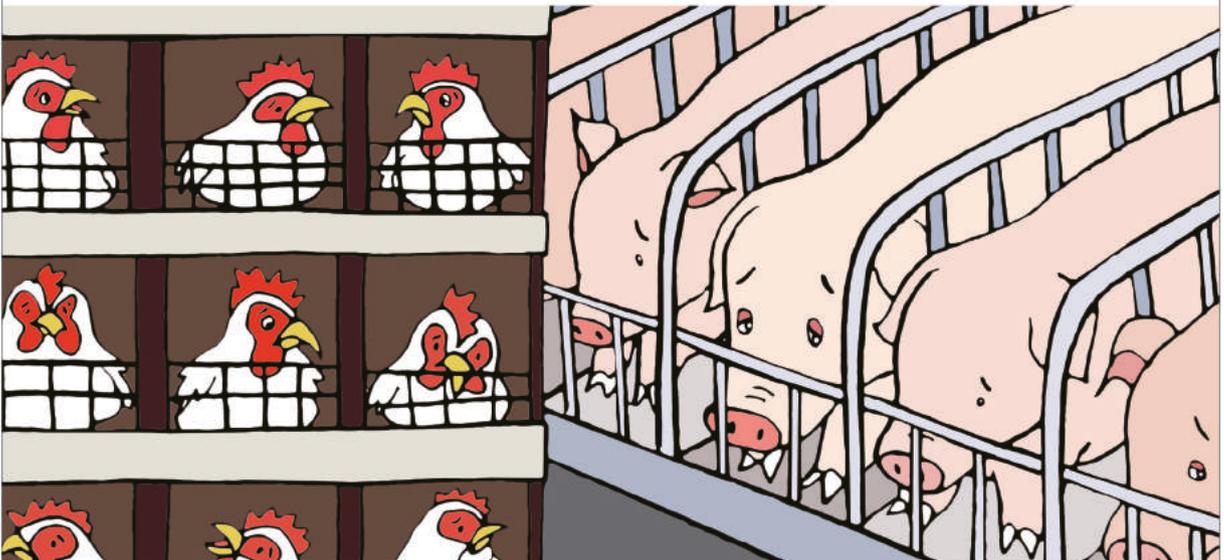
©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코끼리가 잘 지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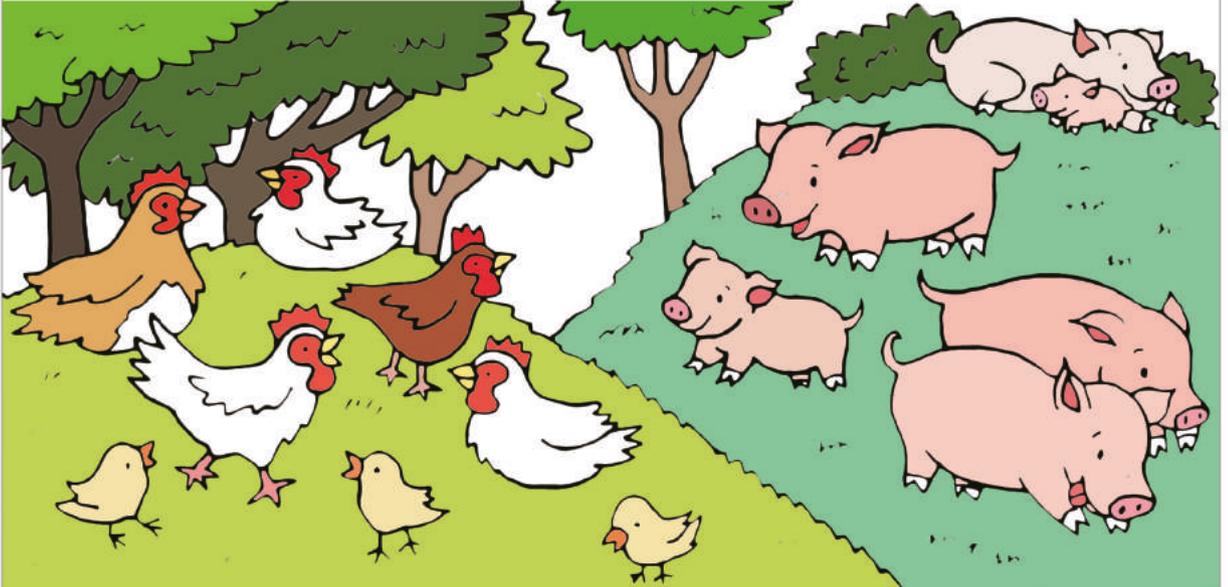


116

닭과 돼지가 잘 지내고 있나요?



닭과 돼지가 잘 지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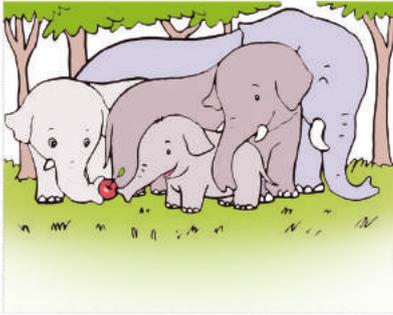


©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p>편안히 살곳이 있다</p>	<p>먹을 것이 있다</p>	<p>마실 물이 있다</p>
<p>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다</p>	<p>사랑 받는다</p>	<p>감히지 않고 자유롭다</p>

©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가족, 친구와 함께 지낸다



괴롭히지 않고 존중한다



함께 놀아준다



동물원의 제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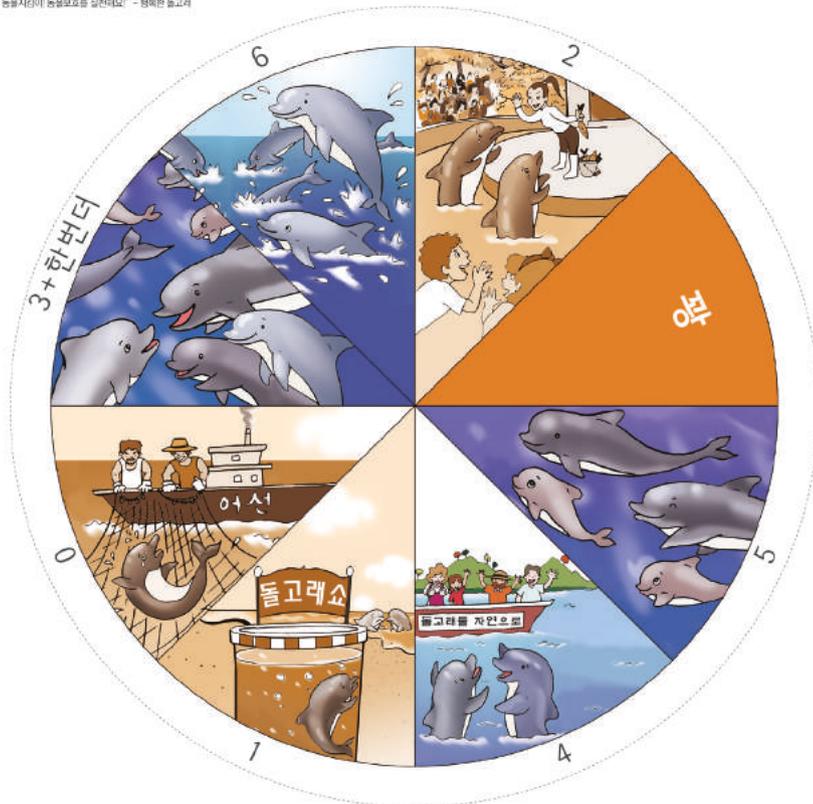
출처 : 서윤심문

바다의 제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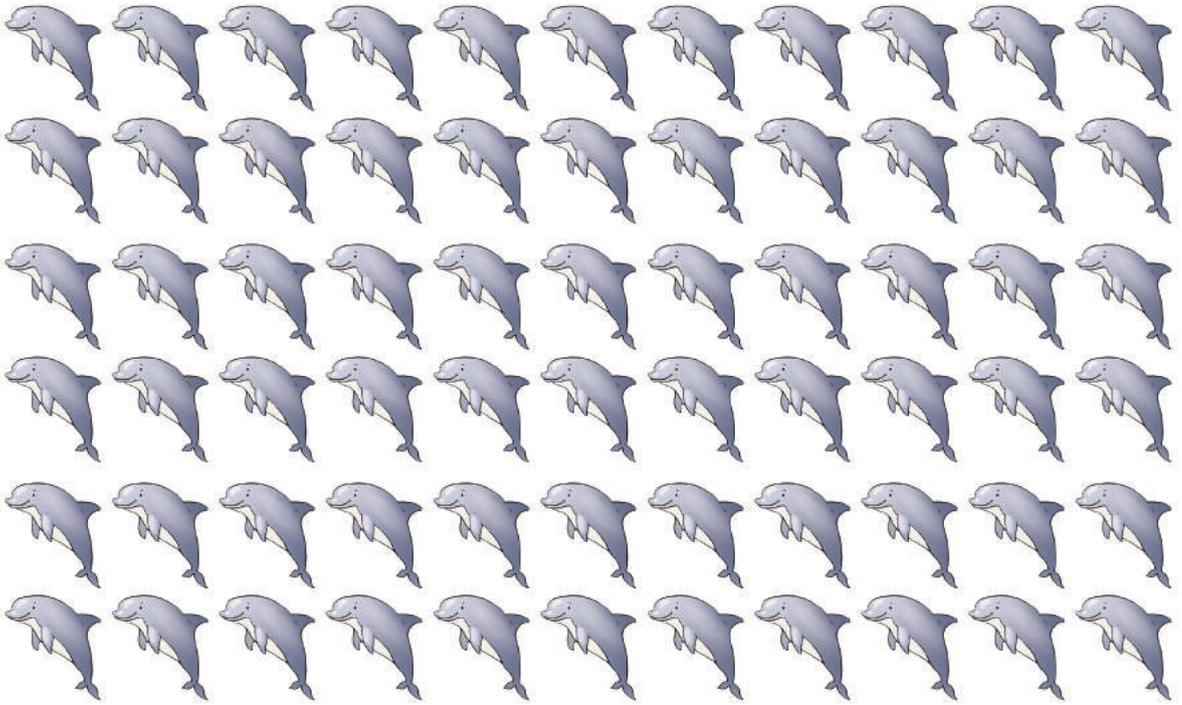


출처: kore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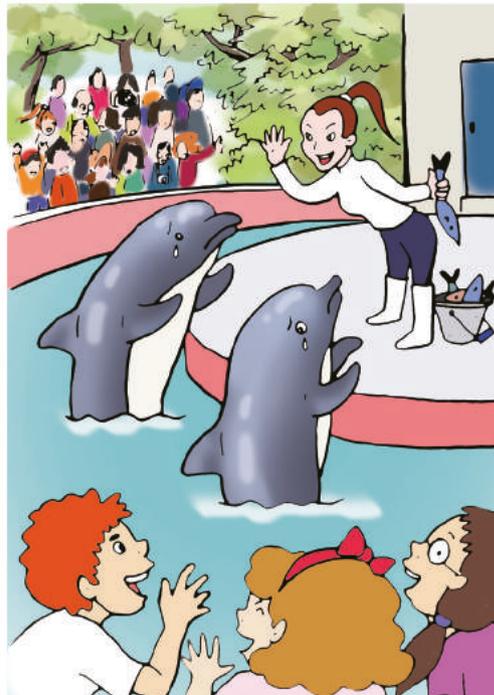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 삽화: 유재민



120



KARA 연안세 동양보호교목 프로그램 "우리는 동양사슴이 동양보호를 실천해요!" - 정역관 송교리

27



©동물권행동 카라

121

KARA 연안세 동양보호교목 프로그램 "우리는 동양사슴이 동양보호를 실천해요!" - 정역관 안현은 소장대표

28

지렁이



출처: Pixabay

©동물권행동 카라

비둘기



출처: Pixabay

© 동물권행동 카라

122

달팽이



출처: Pixabay

© 동물권행동 카라

길 고양이



출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123

개미



출처: Pixabay

©동물권행동 카라

참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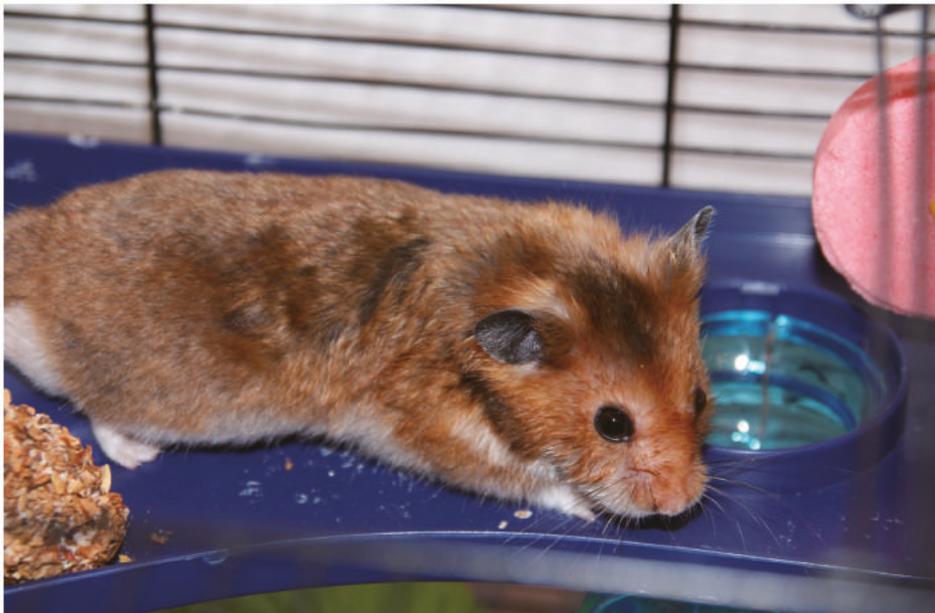


출처: Pixabay

© 동물권행동 카라

124

심심해 보이는 햄스터



출처: Pixabay

© 동물권행동 카라

숨을 곳 없이 지내는 곰



이탈리아의 한 동물원 (출처: 한국일보, Theodo.com)

©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의 동물보호법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 12개의 조문으로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2007년과 2011년의 전면개정을 거쳐 지금의 47개조로 확대·정비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7년 3월 21일 20대국회에서 발의된 15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이루어졌으며, 2018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국가에서 범죄라고 정의·분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의 일종인데, 동물학대의 금지 뿐 아니라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반려동물 등록,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유기동물 보호, 동물판매업 등 관련산업 관리, 동물보호감시원·명예감시원 제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학대 벌칙의 최고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3월부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누구든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우리 동물보호법은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함께할 경우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을 통해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특히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2018년 3월 22일 이후 300만원 이하)

* 동물등록과 관련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www.animal.go.kr)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내용	최대 벌칙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8년 3월 22일 이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18년 3월 22일 이후에도 동일)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2018년 3월 22일 이후에는 '죽이는 행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바뀌어 고의 여부 상 관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며, 동물을 도박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범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고, 증거(동영상, 사진, 녹음, 증인의 증언 등)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의 실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강아지번식장이나 개식용산업 등 반려동물의 보호체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고, 처벌규정 상한에 비해 실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미약하며,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 이전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의 개정으로 동물관련 산업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고, 특히 동물생산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태만으로 인한 동물학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습적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누구든지 즉각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뜯장’ 사용의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적/구조적 학대를 막기 위한 조항도 차차 보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갈 우리 동물보호법과 변화의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이 살아 숨 쉬는 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전 세계 어디든 교육의 제1가치로 꼽는 것은 '생명존중'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유아들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다방면으로 성숙한 가정, 유치원/어린이집,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빈약해 진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가치가 살아숨쉬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유아들이 좋아하는 '동물'과 어떤 관계 맺기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들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선호 감각과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폭력은 사랑도 관심도 없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위하는 것인지 모르는 채로 사랑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이를 드러내 줍니다. 선의였다고 해도 상대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우리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누에벌레를 키울 때 자신과 유아들의 팔 위에 올려놓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누에벌레에게는 뜨겁고 불편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누에벌레를 잘 돌보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데 누에벌레를 구입하기는 너무나 쉬운 세상에서 우리는 의도와 다르게 동물에게 불필요한 해를 가하기가 쉽습니다.

동물을 위한 최고의 존중은, 제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이 본래의 자연 서식지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장, 생태를 관찰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식지에 찾아가는 노력, 동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는 절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동물의 생로병사를 아우르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책임지고 함께하겠다는 반려인의 약속과 결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과 관계를 맺는 데는 성찰과 준비,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동물기르기 활동에 대하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돕는다거나, 동물과 책임있는 교류를 위해 반려생활을 하고자 하는 등의 적합한 계기 없이 동물을 실내로 들여 한정되고 인공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동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키우기 쉽다'고 여기는 동물은 실제로 만족스럽지 못한 일생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선호하는' 종의 동물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른 삶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태어나 팔려가고, 소비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어린이들 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동물도 자기만의 욕구가 있고, 우리가 그걸 존중해 줘야 해"라는 가르침과 배움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을 좋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학대나 다름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동물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인간중심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것에 우리가 더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금 "유아들이 좋아하는 '동물'과 어떤 관계 맺기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동물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을 표현하고 즐기면서, 동물에 대한 존중까지 함께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유치원/어린이집의 동물 기르기 활동에 대해

유치원의 동물 기르기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83.6%가 동물 기르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로 관리하는 사람은 교사(65.3%)가 가장 많았는데, 동물 기르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유치원 교사 모두 청결 및 위생 관리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5년 미만 교사와 10년 미만 교사는 교사의 지식과 경험 부족(21.5%), 10년 미만 교사는 잦은 동물의 죽음(25.4%), 15년 이상 교사는 동물에 의한 안전사고(17.2%)였다

특히 이 조사에서 동물 기르기를 꺼려하는 교사들은 그 이유로 첫째, 동물의 잦은 죽음으로 인한 생명 경시의 위험 때문에 동물을 기르는 것을 꺼려하였고,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둘째, 동물이 죽은 뒤 어떻게 교육으로 이끌지에 대해 고민된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물의 죽음은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부정적 감정을 준다고 답했다.

또 교사의 지속적인 반응, 지원, 그리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동물 기르기가 처음에는 유아를 흥분하게 할 만큼 흥미로운 활동 이었다더라도 유아들이 초기에 보인 동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지속되기가 어렵다(연세 유치원, 2000; Gauthier, 1994)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기르기 어려운 이유'의 14%는 유아의 건강고려 차원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6.1%는 동물 기르기로 인해 1명 이상의 원생이 알려지를 일으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 역시 생각해 볼 부분이다.

영유아들을 위해 동물을 키운다면, "다음을 지켜주세요!"

1. 동물 키우기에 필요한 아래의 내용을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 동물에 알맞은 돌봄(환경, 식단, 행동 특징, 사회성 등)에 대한 정보 조사
- 동물을 위한 환경 조성- 동물의 입소
- 일상 돌봄 및 환경 관리, 혹은 이에 필요한 역할 분배
- 동물을 대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한 유아 대상 교육
- 명절연휴 등 장기연휴 기간 관리, - 건강관리(동물병원 왕복 이동 등)
- 동물의 죽음 이후의 관리(적절한 사체의 처리, 동물의 생로병사 과정에 대한 평가, 이에 대한 유아 교육 등)
- 유아의 알려지,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관리

2. 동물 키우기에 원장, 교사, 유아, 학부모의 동의가 있습니다.
3. 동물 키우기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교사가 1인 이상 있습니다.
4. 동물 키우기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5. 동물의 생로병사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동물은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세요!

1) 동물을 데려와 키우기보다는 존재하는 동물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의 좁은 장 안에서 동물을 키우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에 걸리거나, 유아 등 사람을 공격하거나, 야생과 비교하여 단명(短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수명과 이용주기가 맞지 않을 경우, 동물을 이용한 이후의 처치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없을지 검토해야 하며, 이는 포유류 뿐 아니라 크기가 작은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생명에 공감하고 동물에 동정심을 갖는 선생님이나 유아,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보다는 자연 속에서 동물을 만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유류보다는 곤충을 관찰하는 것이 용이하며, (인간과의 접촉을 꺼리는) 동물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게 하는 곳은 자제하고 동물의 흔적을 탐사하면서 사진, 모형 등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동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2) 동물원 등 동물이 있는 곳을 갈 때, 그곳의 동물복지를 미리 조사하고 방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동동물원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동동물원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기에, 동물들이 잦은 이동과 과도한 인간의 손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동물복지가 열악한 동물원은 가지 않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곳에 소중한 교육비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동물원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동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아들과 함께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3)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유아기는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의 태도와 바람직한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관심, 호기심 등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생명존중교육의 적기로 여겨집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유아들이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생명친화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동물을 더욱 돕고 싶다면 동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교육 현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식단의 일부를 채식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 고기가 섞인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거나, 일주일에 1번 균형잡힌 채식단을 운영하여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병 문제를 예방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2) 동물복지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을 통해 고통받는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물을 소비한다면, 보다 인도적 대우를 받는 동물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3) 건물 주변의 동물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학교구성원들이 동물을 돕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4) 동물보호단체와 함께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동물보호단체에 문의할 수도 있고, 동물보호 캠페인의 내용을 유치원/어린이집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들과 직접 동물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후원모금을 진행하여 동물보호운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진 소개

강정원

강정원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학사, 석사, 박사)을 전공하고,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에서 예비영 유아교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사는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에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양육공동체"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 약자를 배려하는 위대한 시민정신은 언제부터 배울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배려받으며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동물보호교육으로 카라를 만난 후, 제 소망은 한 뼘 더 자라났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자신이 배려받듯이 모든 생명을 배려하는
멋진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만난 모든 이들도 저와 같은 뜻을 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아이들도 동물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함께 하시죠?"

김혜경

김혜경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학사, 석사)을 전공하고, 유치원교사와 원감을 하였으며, 현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수학중이다. 진정한 유아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 유아·교사·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유아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쓰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물에 대한,
아니 생명 있는 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과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세상을
존중과 배려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덕분에 그렇게 세상이 변화할 것입니다."

박아름

박아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교육 담당 활동가로 2013년 6월부터 활동해 왔으며, 동물보호교육 강사 양성 워크숍과 전국 유치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진행해 왔다. 다른 종을 비롯한 우리 안의 타자와 공존하는 사람사회를 지향하며,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풀무질하는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 노랑 무늬가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면서 저의 세상이 변했고,
정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동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동물에 대한 친절을 배우면서
그들을 공간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사회가 더욱 희망찬 거라고 믿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슬로건 :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비전 : 동물이 존엄한 생명으로서 존중 받고 본연의 삶을 영위하며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미션 : 카라는 시민들의 실천, 참여, 공감을 기반으로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임순례)는 2002년 시작되어, 동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입양확산과 유기근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서부터, 산업계의 반생명적 동물 착취 및 야생동물 위협에 저항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특히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다른 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카라 더불어숨 센터

2014년 8월, 카라는 입양카페, 동물병원, 도서관, 교육장이 포함된 '더불어숨 센터'를 서울 마포구에 개관하여 교육과 연구, 동물보호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한 새출발에 나섰습니다. 이는 교육 및 캠페인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인식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인프라를 만들고 확장해 가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며, 더불어숨 센터를 중심으로 카라는 다양한 동물복지평생교육을 통해 여러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 카라 동물보호교육

카라의 동물보호교육은 공감과 배려의 경계를 고통받는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우리 사회의 생명감수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동물이 본연의 삶을 영위하며 공존하는 세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카라의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의 동물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소통을 통해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라 교육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풀뿌리 동물보호교육 실행
- 동물보호교육 인프라 확장
- 동물보호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 카라 교육 주요 연혁

- 2012-현재 -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실시
- 2013 - 동물사랑교과서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발간
- 2013-2014 - 동물보호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실시
- 2015 - 부산, 제주에서 강사양성 워크숍 실시
- 2014 - 도서관/교육장을 갖춘 '카라 더불어숨 센터' 개관
 - 생명공감 청소년 워크숍 '영카라' 실시
 -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국어, 사회, 미술 시간에 하는 동물보호교육-교과교육과 동물보호 교육 접목하기' 실시(경기교육청)
 -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동물보호교육, 최고의 인성교육' 실시(서울시교육청)
- 2015 - 동물보호 청소년 공모전 '나의 생명 나의 공감' 실시
 - 반려동물 행동교육 워크숍 '개는 평생 배운다' 실시
- 2015-현재 - 인천대교 사회공헌팀, 강동구청(2016: 40학급) 등과 함께 동물보호교육 실시 중
 - 2016년부터 관악구청(2016: 10학급)과도 동물보호교육 실시 중
- 2016 - 동물사랑 영화제 '고돌씨네', 북콘서트 '고돌복스' 등 동물복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 만5세 대상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

◆ 카라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동물보호교육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1회 찾아가는 수업부터, 여러 회에 이르는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학교,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진로직업 체험센터 등 어린이·청소년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 동물보호교육 진행 (현재 서울지역 강사 10여 명) 〈더불어숨 센터 내방 교육〉 카라 더불어숨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교육, 인터뷰, 시설 견학 등 진행 (매주 수요일 상시 신청 가능)
동물복지 평생교육	〈생명공감 키크도서관〉 동물권, 동물복지를 소재로 하는 도서와 연관된 북콘서트, 동물 이슈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회 등 매달 실시, 연령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동물보호활동가 양성교육	〈동물보호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동물보호교육을 카라와 함께 실시할 강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 ◆ 카라 교육 문의 : 대표전화 02-3482-0999
교육아카이브팀(교육 문의 및 신청) edu@ekara.org / www.karaedu.org

우리는 동물 지킴이 :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 / 동물권행동
카라 [권]. — 서울 : 동물권행동 카라, 2017
p. : cm

권말부록: 교수자료 : 한국의 동물보호법
참고문헌 수록
ISBN 979-11-950115-4-4 93370 : 비매품

동물 보호 [動物保護]

529.6-KDC6

639.9-DDC23

CIP2017024482

우리는 동물 지킴이

동물 보호를 실천해요

펴낸날 2017년 9월

펴낸곳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임순례

주소 : (03998)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전화 : 02-3482-0999

팩스 : 02-3482-8835

웹사이트 : www.ekara.org / 카라 동물보호교육 www.karaedu.org

연구진 김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교수)

김혜경 (경북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박아름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팀장)

보조원 김다원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학생)

박해인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학생)

자문 남기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이혜원 (동물복지학 박사, 건국대 동물복지연구소 부소장)

삽화 유혜민

편집 디자인이즈

ISBN 979-11-950115-4-4 93370

* 이 프로그램은 생명보협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도움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카라 동물보호교육 웹사이트 www.karaedu.org 를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은 카라 동물보호교육 웹사이트 www.karaedu.org 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협의 없이 본 프로그램 내용을 무단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바다의
생물
세계
여행
이야기



비매품/무료
93370

9 791195 011544
ISBN 979-11-950115-4-4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 적용 사례 등은
카라 동물보호교육 웹사이트 www.karaedu.org 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